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4 '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56 1981년7월3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uly 3. 1981

한·가 정상회담

트루도수상 서울방문 희망

오는 9월하순 전대통령 만나

◇트루도 수상

트루도 연방수상은 오는 9월 서울을 방문,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같은 사실은 본〈한국일보-토론토〉사가 오타와 외무성 관리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로 밝혀졌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트루도 수상은 9월30일 부터 10월7일까지 오스트렐리아 멜본에서 열리는 영연방국 수상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정부에 통고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의 날짜를 협의중이다.

사상 최초의 양국수뇌회담에서는 양국간 무역증진 문제가 주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측은 캔두원자로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산품의 한국수입을 요구하고, 한국측은 섬유류등 한국상품에 대한 캐나다측수입제한 철폐등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추측된다.

15개월난 형백군 무사

6층 창문 모기망 뚫고 추락

15개월된 김형백군이 6층 아파트 창문에서 60피트 아래의 콘크리트 드라이브웨이에 떨어졌으나 기적적으로 무사하다.

김용운씨의 외동아들인 형백군은 3일 하오 노스욕 브렌손병원과 어린이병원서 진찰결과 목뼈가 약간 어긋났으나 뇌와 신경계통, 척추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형백군은 이날 정오께 5 21 핀치·애비뉴·웨스트(×베더스트)에 있는 아파트 604호에서 놀다가 어머니 김문자씨가 조카딸을 돌보는 사이 창문에 친 얇은 모기망 밖으로 떨어진 것이다.

형백군의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로벗·번스씨는 리빙룸에 있다가 아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뛰어나갔으며, 그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불렀다.

번스씨가 달려갔을 때 아기는 옆으로 누워 울고 있었다. 아기는 이마와 넓적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노스욕시는 아파트 창문마다 안전철망을 치도록 3년전 법제화했으나 이 아파트 건물의 많은 창문들이 안전장치가 없다.

라스트만 노스욕 시장은 이번 사건을 특별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의 수퍼인텐던트 졸탄· 바스씨는 거주자들이 안전장치 설치를 거절하거나 자의로 떼어버려 위험한 창문이 많다고 변명했다.

바스씨는 "3년전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건물의 소유주인 그린윈· 프로퍼티·매니지먼트회사를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 건물은 23년전 건립됐다.

◇형백군은 6층 창문에서 60피트 밑으로 떨어졌다.

주미대사 교체

신임 유병현씨 부임

(워싱톤 연합=본사특약) 7월초 이임한 김용식 주미대사는 미주연합기구(OAS)회원초청 오찬회에서 "한국은 OAS회원국및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상호협력및 이해증진을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사는 경제협력과 기술교환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주연합기구는 한국을 영구옵저버로 받아들였다. 김용식 대사가 마련한 이 오찬회에는 50여 미주연합기구 대표들과비회원국으로서는 주미 일본 대사가 참석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7월 주미대사로 부임하는 유병현 예비역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두나라의지역안보와 상호경제 협력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유대사는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동란및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군사관계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류애와 의지의 상징

테리·팍스 그 인물 ①

테리·팍스는 암에 한다리를 잃자, 외발로 마라톤을 했다. 뉴·화운랜드 동쪽해안에서부터 북부 온타리오 하이웨이로 병세악화가 외로운 행군을 멈추게 할 때까지 그는 계속 걸었다. 썬더·베이 근처에서 희망의 마라톤을 중단했을 때는 다리를 절단할 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암이 가슴으로 번지고 있었다.

팍스군은 다리를 잃은 18살때 5,200마일의 캐나다 횡단을 계획했다. 그는 계획의 반이 넘는 3,000마일이나 외롭고 괴로운 외다리마라톤을 했던 것이다.

노동자 가정에서 자란 팍스군은 학교때 성적은 평균 B였다. 그는 이제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 인의 찬사를 받는 의지의 사나이로 부각됐다.

작년 4월 팍스군이 희망의 마라톤을 시작하자 이 소식은 캐나다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갔다. 팍스군은 개인적 신념으로 희망의 마라톤을 시작,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온 캐나다인의 소망이었고, 용기와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대서양의 각주를 거쳐 퀘벡주에 이를 때까지는 그는 전 국내의 관심을 사지 못했다.

그는 온타리오 주경에들어서면서부터 매스컴의 강렬한 스폿·라이트를 받고, 캐나다의 영웅이 되었다. TV카메라는 행군 초반에는 호기심으로 쫓았지만 곧 그의 강인한 의지와 행군의 의의를 알게 되었다.

토론토를 지나 북쪽으로 향했을 때 팍스군은 매일 TV화면에 살며, 국민의 동정과 찬사를 받았다. 그가 암퇴치기금을 위하여 뛰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기금모금은 급속히 불었다. 어린이, 주부, 노동자, 기업체, 회사원등으로부터의 헌납액은 2천3백만 달러가 넘었다.

그는 캐나다암협회 사상 가장 큰 기금 헌납자가 되었다. 팍스군이 암으로 마라톤을 중단한 뒤 전국의 의사들은 그의 치료방법을 논의했다.

그는 다리암을 오진한 의사 때문에 의사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팍스가 뱅쿠버의 사이몬·프레이저대학 농구선수였을 때 처음으로 오른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왔다. 그를 진찰한 의사는 진통제만 주다가 후에 전문의에게 보내 암이라고 판명되었다.

마라톤을 계속하는 동안 팍스는 암협회의 정기검진 권유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가 썬더·베이를 눈앞에 두고 쓰러졌을 때야 의사가 진찰할 수 있었다.

팍스군은 행군 중단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은 수동적이고 잘못될까봐 조바심만 낸다. 내가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의사는 나를 미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팍스는 다리절단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농구도 할 수 없고, 뛸 수도 없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울었다.

다리 절단 며칠후 그는 잡지에서 외다리로 26마일을 뛴 사람의 기사를 읽고 방문한 친구에게 "나도 할 수 있어"하고 외쳤다.

◇테리·팍스—그는 외롭고 고되고 지루한 "희망의 마라톤"을 혼자 끈질기게 계속했다. 한발은 목발! 그의 정신은 숭고한 우애에 불탔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형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8 2962
구독료 : 연$90, 월$8.00
SECOND CLASS MAIL NP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마드화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3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어디로 모실까요?

유럽관광
출발 : 7월6일 8월5일
귀환 : 7월21일 8월20일
U.S. 딸라 1690불
(뉴욕 출발, 귀환)
※15일간에 걸쳐 17개도시 관광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모국방문 IATA 특별요금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최 동 주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　장 : 이 현 인
부회장 :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사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상도의 확립 캠페인의 득실

협회는 지난1월29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상도의 확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상도의 확립운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들뿐 아니라, 범교포적 차원에서 상도의 확립이 정신적 의식을 촉구하는 의미로 교포 지도자들의 고견을 청탁하여 본란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상도의확립위원회 위원들과 임원들은 문제의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기도하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의 청취, 권면과 설득,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캠페인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교포언론기관의 협조로 여론화되어 그 결실이 갖가지로 맺아졌으며,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하여 득과실을 따져보고, 새로운 방향의 설정과 그 진로를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수치스러움을 거울로 삼아

이 상도의 확립운동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 동기는 수치스러운 T. T. C. 위조표사건, 부정담배유출에 대한 특별수사반의 활동, 그리고 회원끼리의 피흘리는 가격경쟁, 성업중인 스토어 곁에 파고 들어와 새 스토어를 오픈 하려는 문제, 가까이 스토어를 갖고 있는 동포끼리의 경원갈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사회문제화되어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자연히 그것은 한국인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될 때 이를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번만의 수치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와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서는 바람직한 상도의의 확립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막힌 담을 여는 정성으로

이제까지의 캠페인은 값진 열매를 남겼다. 그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열거해 본다.

첫째로 이 캠페인을 통하여 서로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하고 툭 털어놓아야 할 것들, 서로는 이웃들, 한 블럭 (지역)에서 똑같은 업종의 코너스토어를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외면하던 이들이 함께 대화를 갖는다는 것. 거기에는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다. 그저 만나서 말을 주고 받는 사이, 소박한 정과 정이 통하는 인간이해가 이루어지다보면 서먹했던 문제들의 실마리가 저절로 풀리는 것이다.

둘째로, 자숙하게 된 일이다. 무모한 계획 그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험심이라고 변명하며, 저돌적으로 몰아치던 사람들이 비등하는 여론 앞에서 스스로 그러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지혜를 깨달은 것이다.

세째는, 문제의 당사자들이 자기 변호의 구체적 논증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이는 위원들과 임원들이 당사자와 만나서 함께 나눈 대화로 와진것이며, 그 분이 3만교포들의 의견을 듣기 원해서 스스로 지상에,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본다. 어쩌면 이런지상공개 토론을 통하여 각기 자기나름의 이론적 합리성을 발굴해 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류의 상도덕관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도의 확립은 양심에서

상도의확립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다. 협회 이사회 상설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각개인의 인간적인 양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운동으로 이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하여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순화된 양심, 그것은 공정한 이윤의 추구로 발로되는 것일 것이며, 정당하게 자기가 일한 몫을 보상받는다는 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개 우리는 아무 경험도 없이 스토어경영에 뛰어 들었다고 본다. 어떤 이는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한 분도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편할 때 일해야 했고, 늘 잠에 밀리면서 장시간의 짜증을 달래가는 삶임을 안다. 허지만 공통되는 것을 구태어 찾는다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것, 모두가 영세상인이라는 것, 그리고 스토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더욱 성실히 근면하고 친절한 상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자기 일을 사랑하자

각자는 자기의 일에 정당성을 내세운다. 문제를 만드는 당사자들도 자기나름의 정당한 이론을 주장한다. 간혹 우리는 심신의 피로에서 오는 편견과 피해망상으로부터 부도덕한 일을 감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편견의 이해득실 때문에 먼 앞날의 큰 보람을 외면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결코 성급하게 한다고해서 노력의 댓가가 눈앞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일을 사랑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멋을 지니게될때 상도의의 파괴자가 되지않을 것이다.

경쟁은 해도 페어플레이를

유대인들은 동종의 사업을해도 경쟁을 피하려고하지만 만약에 경쟁도 피할 수없는 경우에는 절대로가격을 덤핑하지 않는다고한다. 그들은 언제나 비슷한 가격으로 걸음을 맞추어나가고, 다만 경쟁은 고객에 대한 친절한봉사,그리고청결과 시설을 가지고한다. 만일 그 경쟁에서 져서 망해도 자기과오를 시인하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선다고 한다. 그들이 오늘날 세계 경제계에서무시못할 세력으로 성장한것이 바로 페어플레이(Fair Play)에 있다고 한다.

이따금 우리는 아전인수격인 자기도취에 빠진다. 그럴때에 자기반성을 냉철히 한다해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때가 있게된다. 그때에 서로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해주는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물며 구수하고 조용한 우리의 한국말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어찌 뜻이 통해지지 않을것인가? 누군가 피는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자기 욕심을 버릴때에만

자기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하면 무언가 남에게 해를끼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상행위는 자기이익의추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고 바른 양심에서 그 이윤을 쟁취하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는 것이어야한다. 그리고 그것은 값어치있게 쓸줄도 알아야한다.

상도의 확립은 혼자서는 이룰수 없다. 실협회원만이 아니라 전 교포들이 합께부르는 합창처럼 마음을 합해야 그 결실을 볼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린다는 위치에서 내일의 결실을 기대하는 숙연한 자세로 조금이라도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는 겸허한 생각을 갖자.

자기독선과 '자가왕국의 테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나와너 즉 이웃을 연결하는 양심과 사랑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구현해보자. 그 캠페인의 의미는 우리 후세들에게도 계승되는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밀크파업 계속중"

리베이트는 영향 없을 터

실버·울 밀크회사의 파업은 지난5월31일부터 1개월 이상 계속되고있어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입고 있는 협회산하의 회원들에게는 그 줄어든 매상액에 대한 리베이트 퍼센테이지에대한 염려를 덜게 되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회사당국자가 협회임원에게 파업으로 인해 회원들에게많은 고충을 끼치게 된것을 사과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파업종식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불편을 주고있는 밀크배달 루우트를 정비하여 지장을 최소한도로 줄일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리고 협회산하의 전회원 스토어에게는특별배려를 약속해 왔는데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정규배달 이외의 스페샬 배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스페샬 배달료를 리베이트에서 2%삭감)

(2)매상액이 줄어도 그 리베이트의 퍼센트를 바꾸지 않는다.

(3)1% 범위내의 리턴 량을 인정하던 정책도 적용치않는다. (전에는 1%가 넘는 것은 리베이트에서 삭감함)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Sales매니저 Gordon Mc Grail(536-2424)에게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면 알수 있다.

서사무원 휴가

협회사무실의 친절한 전화상담자 서선미 사무원이 6일부터 10일까지 여름휴가를 갖게된다. 그동안은 사무장이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를….

교민동정

◆이종철(신부,로마유학중)=여름방학을 이용,토론토한인천주교회 성무를 돕고자 지난30일 도착,7,8월2개월간 머문다. 한편 6월한달동안 사목을 돕던이찬우신부(교회법박사)는 미국의 한인성당을 돕기위해 지난 29일 떠났다.

◆양혜신(한인장로교회)=이곳에「대한부인회」창설을 앞두고, 그 산파역을 맡아 동분서주, 더위도 잊을 지경이라고….

◆백경락(사격협회장)=무더위 속에서도 심신건강을 위해 6월27일 사격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대회를 치른 후의 허탈감은 긴장을 푼 때문인듯.

◆나옥녀(전TV탈렌트 이기항씨 부인)=1969년부터 11년간 KBS·TV 전속인기탈렌트로 연예활동을 계속하다 토론토교포 이기항씨(한국관경영)과 결혼, 지난4월24일 캐나다이민후, 현재 한국관 경영에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나옥녀씨

—상인을 위한 대책—

환불과 교환조건②

6. 조건(Condition)과 보장(Wavranty)

스토어를 사고 파는데여러가지 조건과 보장이 첨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매상 액수를 파는 사람이 보장하거나 스토어를 사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분을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기한내에 꿀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매입자가 계약을 맺는 일이다.

〈법률코너〉

조건과 보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보장이 불충분하게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계약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한다.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토어를 사는 사람이 은행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돈을 꾸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예약금을 반환받게 되지만, 매상액이 보장되었던 금액보다 적다고해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려면 정해진 기한내에, 또는 정해진 기한이 없을 때, 적당한 시간내에 취소해야지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가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조건에 사는 사람이 10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1만달러를 빌릴 수 있는 조건아래·계약이 성립되었는데, 10일이 지나도록 돈을 얻지 못했으면 매입자는 10일이 지난 후 적당한 시간내에(이 경우는 하루나 이틀 이내) 상대방에게 계약취소 통고를 해야한다. 오래 끌면 조건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게끔 될 수 있으며,계약을 못 이행하게 되면 예약금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매상액이 5천달러라고 보장을 받았는데,실제로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해보니 4500달러 밖에 안되는 경우, 가게를 산 사람은 스토어를 다시 반환하지 못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는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그러므로 필자의 의견으로는 계약서에 나타난 매상액에 대한 보장을 믿고 스토어를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관찰하여 그 스토어의 전망에 대해 판단을 내린 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자신의 판단과 관찰력에 의존하여 스토어를 사야지, 파는 사람의 언질에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사업을 할 때는 간혹 모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매상액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토어에 들어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계약을 맺아, 자신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정부 환경성으로 부터 회원들 스토어에 배부하여 주기를 위탁하여 온 청량음료 용기(병) 반환에 대한 안내포스터가 협회사무실에 입수되었다. 이 포스터들은 온타리오주 환경보호법「콘테이너 처리법」제8조1항에 의하여 청량음료를 취급·판매하는 소매상들이 고객들의 눈에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청량음료운반용기인 빈병을 재사용할수 있는 것이면 한 고객으로부터 24시간내에 48병까지 받아주어야 하며, 그 스토어에서 판매한 병들은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환불보증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회원은 협회사무실에서 가져갈 수 있다.

○문선명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 추방 위기

이민국서 "심각히 고려중"

(뉴욕)미국 이민국은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를 미국서 추방하는 문제를"심각히 고려중"이라고 뉴욕타임스및데일리·매일지가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문씨가족이 "추방단계에 놓여있다"라고 보도했다.

문씨는 영주권이 있으나 문씨부인은 없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가진 자라도 사회적 물의가 있을때는추방이 가능하다"라는 이민법 조항을 발동할수 있다.

이민국은 특히 문씨부인이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한번도 학교서 공부한적이 없는점에 대해 집중조사를 펴고있다.

최근 뉴욕근교 그린스보로 주민들은 통일교단을상대로 20만 달러의 재산세 및 교육세지불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문씨가 호화저택을 쓰고있고 그린스보로에 405에이커에 달하는 부동산을 가졌으나 세금은 한푼도 안냈다고 주장했다.

신랑 : 성규석군 (성용창씨 2남)
신부 : 고명애양 (고광원씨 3녀)
시간 : 81년7월11일(토) 낮 12시
장소 : 중앙장로교회 (502 Bathurst)
주례 : 정관일 목사

〈사람을 찾음〉

옥사5촌, 대령출신인 송광보씨(54세 정도)를 알버타주 포트·맥머리 거주 이순구씨가 찾습니다.

연락처 :
358 Cornwall Dr.
Ft. McMurray, AB
T9K 1G7

에너지 문제 해결이 큰 관건

「온타리오」의 80년대경제 전망과 문제점

엄 승 용(경제학박사=알버타거주)

온타리오 경제는 캐나다 국민경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970년대까지 지배적 위치를 계속 점유해왔다. 70년 초기에는 온타리오의 경제성장율이 연평균 4.7% 로서 60년대의 높은 성장단계를 지속했으나 70년 후반기에는 실질 성장율이 대폭 줄어들어서 연평균 1.5% 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80 년에는 악화하여 마이너스 1% 라는 경제후퇴를 면치못했다. 이의 주원인은 말할것도 없이 73년 오일파동과 함께 몰아친 석유가의 폭등과 이로인한 대형북미자동차에 대한 소비자기호가 변화하므로서 자동차 업계가 부진하기 시작, 이와 연관된 수많은 연관업체가 불항을 맞게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주요경제 지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목할만한 것은 성장율은 계속 하강세를 보인 반면 인프레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업율은 79년에 다소 호전 되었다가 80년에는 약간악화되었으나 78년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아마 자본에 대한 노동대체가능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이러한 최근 경제 실적을 배경으로 하여 81 년과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여 본다면 만일 미국경제가 1980년 말기에 보인 이례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또 자동차업계가소형화및유류 절약형 모델을 조속히 확장하여 북미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회복, 연관산업의 경기파급을 촉진 할 수 있다면 81년에는 약 1.5% ~2.0% 의 실질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경제측면은 치솟는 이자율 때문에 자동차 구매의욕이 있더라도 신용매출을 위한 월부판매가 힘들어 진다는 점과 석유값의 점진적 상승은 소비자구매력에 압박을 가한다는 점이다.

부문별로 볼때는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중 화학, 고무, 프라스틱및 기계류가 높은 성장을 보일것이 예상되며 자동차공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2년에나 가서야 시장회복과 경기상승이 전망되고 석유절약형 소형화작업의 진전도에 달렸다고 하겠다. 계속 오르는 이자율은 주택수요를 침체시키며 주택건설을 지연 시키는 주요원인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은 대체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을 것이나 지난 몇년간 주저했던 새주택수요 가 구매력으로 나타난다면 1981년에는 신규가옥건설이 약55000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80년에는 42,000).

온타리오 경제의 저력은 ①공업구조의 다변화 ②미국과 캐나다 대시장에 접근해 있다는 것 ③천연자원의 확보등이므로 80년대에 직면할 산업계의 도전은 계속오르는 석유값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능률성이 높은 자본설비의 확보내지 대체가 조속히 성취되고 연방정부와 알버타정부간의 석유협정이 타결되어 유류값의 국제적가격이 점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온타리오 경제의 앞날은 그렇게 비관적이 아니라고 분석된다.

온타리오 주요 경제 지표

	1980	1979	1978
인구(천명)	8570	8503	8444
GNP(억달러)	964	883	773
성장율(%)	−1.0	+1.4	+3.5
실업율(%)	6.9	6.5	7.2
물가변동율(%)	10.1	9.3	8.5
수출(억달러)	292	268	233
수입(억달러)	375	356	284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십을 바랍니다.

— 아　　래 —

응모마감 : 1981년 7월30일
작　　품 : 수기, 시, 수필, 콩트등 원고제한 없음.
실사위원 : 추후 발표함
시　　상 :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 ($200현금)
3 〃 〃 ($100현금)
원고제출처 : O. K. B. 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中共, 對西方交流 활발 예상

鄧小平 實權굳혔지만 넘어야할問題點 첩첩

「實用」「理念」조화가 關鍵 빠른 成長이 成敗 좌우

文革派가半인 黨、政策기구轉換 난관
"獨自개발" "受援" 분열…軍部반발 우려

【北京30日UPI=聯合】 중공의 실권자인 鄧小平은 권력의 터전을닦는데 성공했으나 중공당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지는못할것이다. 3천8백만명의 당원을 갖고있는 중공黨은 7월1일로 창당 60주년을 맞이했으나 최근 수년동안 이데올로기와 경제발전중 어느것에 더 역점을 둘것인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서방의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는것중 어느방법을 택할것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최고지도층사이의 심각한 의견분열로 고민해왔다.

당주석 華國鋒을 몰아내고 측근 胡耀邦을 새당주석에 앉힌 鄧의 승리는 외국기술과 재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려는 鄧의 實用主義노선이 중공에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鄧이 당내지도층의 분열을 해소시킴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은 당도「중공경제4개현대화방침」의 달성에 주력할수있게됐다. 한 아시아외교관은「6中全會가 끝난 현재 중공은 수개월내에 순조롭게 활력을 되찾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鄧과 중공당이 중공군대화와 강력한 중공을 이룩하기위해서는 내부분열보다 더 힘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젊은이를 주축으로한 중공 수천만국민들 사이에는 현재 당이 이미 알고있는 바와같이「信念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많은 중공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鄧의 현대화계획에 나타난것과같이 크게 나아질것이라고는 믿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현대화계획이 시대와함께 사라질 또하나의 정치적구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같은 환경과 냉담한 반응을 억제하기위해 당은 앞으로 수년내에 빠른경제성장을 이룩해야할 처지에 놓였으며 많은 뿌리깊은 경제문제 수정이라는 과제도 안고있다.

鄧은 또 당을 거의 전면개편, 이데올로기만 남발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경제개발에 대처할수있는 효과적인 정책결정기구로 탈바꿈시켜야 할것이다. 鄧은 특히 중산층이하의 당원들을 독려하여 권력추구활동을 포기시키고 경제개발에 전력하도록해야한다. 鄧이 중공인들의 신임을 얻기위해 당을 개편하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수 있다고 해도 그는 중공군문제로 또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군은 아직도 毛澤東의 유령에 충성을 다짐하고 있으며 鄧이 재빠른 변혁으로 군지도층을 위협한다면 군지도층은 오히려 鄧에 압력을 가해올 것이다. 결국 鄧은 중공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수 없는 곤궁에 처하게될것이다.

◇中共의 實力者들 中共黨 대회에서 黨主席으로 선출된 胡耀邦이 투표에앞서 黨간부들과 무엇인가 협의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陳雲, 鄧小平, 胡, 李先念. 【北京29日AP電送=聯合】

中共 黨主席에 胡耀邦

6中全會폐막 華 副主席(序列7위)으로 降等

鄧小平 軍事委主席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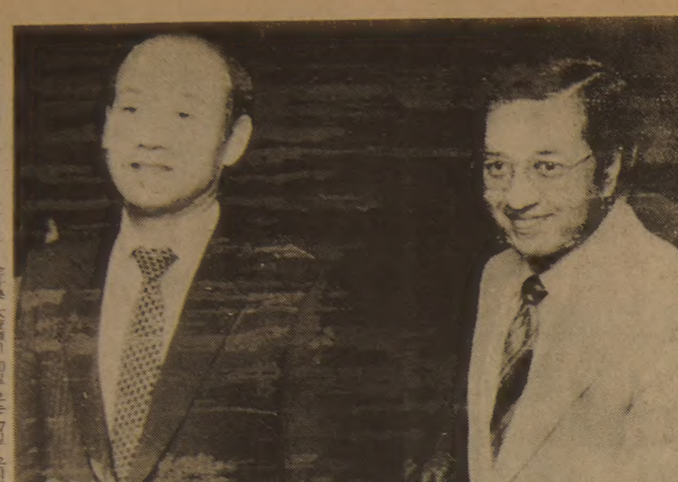
【北京29日UPI·路透=聯合】 중공은 29일 최고위黨職개편을 단행, 당주석 華國鋒(60)이 사임하고 당중앙위원회총서기 胡耀邦(65)이 후임 주석으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중공당은 지난27일부터 3일간 열린 당제11기중앙위6차전체회의(6中全會)를이날 폐막하면서 발표한 공식성명을 통해 3백62명의 중앙위원들이 당주석 華의사표를 수리하고 胡를 새 주석으로 선출했으며 華는 당주석직과함께 겸임하고있던 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직도사임, 후임 군사위주석에 당부주석 鄧小平(76)이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문은 이어 華가 당주석직에서 사임했으나 胡耀邦·葉劍英·鄧小平·趙紫陽(수상)·李先念·陳雲에 이어 당서열 7위의 정치국상무위원이자 서열6위의 부주석에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또 6中全會가 중공건국이후 32년동안 일어났던 중공내의 모든 정치사건과 前당주석인 故毛澤東노선을 재평가한『건국이래 약간의 당의 역사에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前廣東省 당제1서기 習仲勛을 중앙위서기국서기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6中全會가 채택한『약간의 당의 역사에관한 決議』는 毛를『中國革命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스승』이라고 규정함으로써 毛가 50년대의 大躍進운동과 60년대 文化大革命기간중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공당과 국가에 기여한 功이 過보다 훨씬 많음을 인정했다.



◇全大統領·모하메드會談 全斗煥 大統領이 30일 오는 17일 은퇴하는 후세인·온말레이지아수상의 뒤를이어 새 수상에 취임할 마하티르·모하메드 부수상과 회담한후 수상실에서 함께 걸어나오고있다. 【쿠알라룸푸르30日 [illegible]=聯合】

한국、技術·建設부문 積極협력

말聯、石油·고무·原木 對韓공급

全대통령·모하메드副首相(次期首相)회담

【쿠알라룸푸르30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은 30일 상오11시30분(현지시간 상오10시·이하한국시간) 말레이지아首相室에서 다음 首相내정자인 마하티르·모하메드副首相과 韓·말레이지아首腦회담을 갖고 東아시아및 국제정세전반과 말레이지아의 제4차 5개년계획(81~85년)에 대한 한국의 참여확대방안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관계장관을 배석시키기로 했던 당초계획을 갑자기바꾸어 통역1명만 배석시킨 이날 단독首腦회담을통해 양국지도자는 앞으로 5년동안약 5백억달러가 투입되는 말레이지아의 제4차 5개년계획에 한국은 시멘트、木材加工등 제조 가공부문의 합작투자와 기술협력 그리고 도로、港灣、댐건설등 건설부문에 관한구체적인 참여확대방안에 관해협의했다.

두나라 首腦는 이자리에서 최근 각국의 保護무역주의 강화경향에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무역의 균형적인 확대방안과 石油、天然고무、原木등 말레이지아 주요자원의 對韓안정공급 방안을 협의한것으로 안다고 李雄熙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首腦는또두나라가같은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부문이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말레이지아의 자원과 한국의 개발경험및 기술축적의 결합등 양국의 공업화추진을위한 협력 증대방안을 협의했는데 특히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말레이지아의 농촌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방안을 아울러 협의했다.

이날 회담은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근 정세에대해 의견을 나누고 東北亞 安保와 東南亞安保가 상호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공동인식하고 域內安保를위해 상호공동노력할것에 의견을 같이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마하티르副首相은 全대통령으로부터 1·12및 6·5提議등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대한 설명을들은뒤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말레이지아 정부의 종래입장을재확인하고 한국의 유엔同時가입정책을 지지한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이밖에 東南亞가「平和·自由·中立지대가 돼야한다」는「아세안선언」과 캄보디아문제는 유엔總會의 결의에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것으로 전해졌다.

韓·말레이지아 양국은 이날 首腦회담에서 논의된사항을 구체화하기위해 하오4시 외相회담, 하오4시30분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토의된내용을 首腦회담에서 합의된 사항과 함께 7월1일낮 全대통령일행이 이번 아세안巡訪의 세번째방문국인싱가포르로向發하기앞서 공동성명을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날 양국首腦회담에는 후세인·온首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辭意를표명했고 집권당인 움노黨이 지난28일 全黨대회에서 마하티르 副首相을 黨의장(총재)으로선출, 오는 7월16일이후 次期수상으로 취임하기때문에 마하티르 副首相이 온首相대신 참석했다.

아세안巡訪에 오른지6일, 말레이지아 방문으로는 이틀째를 맞은 全대통령은 이날 首腦회담을 갖기앞서 상오11시 이곳 현충탑을 찾아 헌화했으며 회담후 하오2시에는 시내 힐튼호텔에서 僑民들을 위해 崔浩中대사가 주최한리셉션에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참석, 교민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교민 1백30여명을 접견한뒤 격려사를통해『본인은이곳에까지진출하여 각분야에서 땀흘려 일하고있는 동포여러분을 머리에그리면서 자연자원이 풍족하지못한 우리나라는 그대신 유능한人的자원을 보유하고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마음든든하게생각한다』며 교민들의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또『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고있는 조국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고있다』고 말하고『제5공화국 출범을 즈음하여 우리사회는 안정을되찾았으며 그 토대위에서 창조와 발전, 개혁의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움트고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 하오6시 숙소인 영빈관에서 아마드國王부처의 答訪을받은뒤 하오9시에는 崔대사주최 리셉션과 대사관저에 마련된 비공식만찬에 참석했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日程

◇1일(한국시간) ▲상오=아마드國王부처의 送別예방(王宮) ▲〃=수방국제공항歡送행사후싱가포르向發 ▲하오=싱가포르창기국제공항도착 ▲〃=공식환영식(이스타나本館앞) ▲〃=싱 대통령 권한代行부처예방(이스타나本館) ▲〃=싱가포르港灣시찰 ▲〃=李光耀수상접견환담(迎賓館빌라) ▲〃=싱 대통령권한代行 부처주최 晩餐(이스타나本館)

"임시國會召集 不要"

黨政協議會 政策발표 黨과事前협의

정부와 民正黨은 30일하오6시 서울實勳洞 民正黨중앙당사에서 黨政協議會를 열고 제108회임시국회 소집여부와 정기국회에 대비한 公約사업추진등에 따른 구체적인 黨政협조방안에관해 협의했다.

지난 4월30일 三淸洞총리공관에서 南悳祐총리주재로 열린 제1차 黨政協議會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民正黨은 국회에 제출할 法案을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심사할수 있도록 미리 제출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각종정책발표는 가급적 民正黨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李載瀅대표위원주재로 만찬을겸해 열린 이날회의에서는 정기국회이전에 따로 임시국회를 소집할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機, 이란爆擊

【니코시아29日AP=聯合】 이라크전투기들은 유엔중재인 올로프·팔메씨가 4차중재시도를 끝내고 제네바로 떠난것과 때를 맞추어 29일 이란북서부와 남부의 목표물들을 공격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社會漫評

頂上에 登…

地平線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이도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면 약30%나 값이 비싸다는것을 아는이가 드물다. 거꾸로 병실이 만원일때 응급실을 통하면 빨리 입원할수있다는것을 아는이도 많지않다.

▼얼마전에 急患者가 시내 여러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가 늦어 숨진일이 있다. 너무나도 급해 무턱대고 병원을 찾았지 그병원이 보험혜택을 입을수있는지, 병실이 비어있는지, 알아볼 염두를 못했을 것이다. 병원의사도 사람이기때문에 쉬는시간도있고 진료과목에따라선 환자를 종합병원에 한시라도빨리 보내야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수있는데 급한환자로서는 분간하기 힘들때가많다. 알다가도 모르는것이 병원이고 이래저래 병원문턱엔 바람 잘날이 적다.

▼오늘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지 만4년이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나 보험수혜자가 어느새 9백11만 3천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국민 3천8백만명의 23·9%가 되었으니 의료보험이 이젠 본궤도에 오른셈이다. 지난해에 진료받은사람만 연4천8백63만3천명이라니 놀랄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세근로자와 농어촌주민등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보험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도 보험푸대접을 입버릇처럼 되뇌는가하면 의료기관은 보험수가가 일반수가의 70%밖에 안된다고 그들나름대로 불평이다.

▼시골에서는 큰병에 걸리면 무료진료혜택이나 받아야 살아나지 돈없으면 병을못고친다고 팔자타령만 하게된다. 그뿐이아니다. 도시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는사람도 크건작건 불만이 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성인병의 경우에도 6개월밖엔 혜택을 못받으니 몇년씩 보험비를 낸사람은 이것이무슨 보험인가 생각하게된다. 6개월후엔죽어도좋다는얘기나 비슷하다. 보험료를 많이 내도 보험혜택받기는 마찬가지이고 한가족에서 둘이보험료를 내도 다를게없다. 직계존비속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린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가하면 떨어져사는 노부모를 병원에 모실려면 구차한수속을 따로해야한다. 급할때 어느결에 그럴수가있을까. 또 검사비나 이빨교정같은때는 해당되지도 않는다.

▼외국에선 의료를 교육처럼 생각한다. 세금을낸 국민은 누구나 의료시혜를 받을수있는 것이 유럽에선 일반화되어있다. 영국의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에 알맞다고들 한다. 누구나 자기동네 병원에서 보험혜택을 받을수있고 현금없이도 일반병원에서 수술, 치료, 입원을 할수있는 것이다. 결국 마련을 시작한 의료보험도 이젠 4살내기가 되었으니 그동안 쌓였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할때가 되지않았을까.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____ 은 : 온스당 US____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 표창장 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PIONEER CAR+HOME STEREO
각종 STEREO SYTEM.
Pioneer, Sharp, Hitachi,
$499~$3,000 이상의 고급품,
Receiver, Tapedeck, Turntable,
Audio Stand
각종의 스피커를 구비하고 있음.
카 스테레오, 각종 고급
카 스피커 취급함.
그외 고급 Cassette tape
야외용 Portable, Stereo도 구비하고 있읍니다.
HI-FI HOUSE
영업시간 : 10시—9시 ☎ : 633—2332
토 요 일 : 10시—6시
4544 DUFFERIN ST. UNIT 6
(휜치×더프린)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카메라(Nikon, Pentax, Yashica등) ●Movie카메라 일체 ●각종렌즈 ●라디오, 망원경, 트리포트 영사기, 환등기, Flash ●전자계산기 ●Vedeo Set, 카메라, 테프 전축바늘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트로피

CAROL'S JEWELERY & GIFTS
시내 MALL안에 있는 조그만 보석및 GIFT점입니다. 다이아몬드및 불로바 세이코 시계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무슨 종류의 보석(특히 다이아몬드)이든 최저가격으로 주문도 해 드립니다.
특히 시계, 보석수리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시계·보석 선물용 gift등 무슨 상담이든 환영하오며, 스페샬 가격으로 교민을 위하여 봉사코저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 상 길 올림
345 BLOOR ST. E.
BLOOR & SHERBOURN에서 약간 서쪽MALL안에 (GREENWIN SGUARE)
월~수 오전10시~오후7시
목~금 오전10~오후9시
토 오전10시~오후6시
B) 967—3449, R) 429—1392

SUN... ...SUN...ROOFS!
MOON'S LETS THE SUN SHINE IN!...
WINDSHIELDS INSTALLED • ALL MAKES INSURANCE CLAIMS
SUN ROOFS FROM ONLY $140.00 INSTALLED
GRAND OPENING SPECIALS
VINYL ROOFS ONLY $100.00
Car Upholstery and Steam Cleaning Available.
MOON'S AUTO TRIM & GLASS LTD.
638-0656
12 LE PAGE CRT. UNIT 4 DOWNSVIEW
정 해 문
Finch & Keele

아프간 國際會議소집 합의

EEC 10개國 頂上會談 개막

蘇 占領종식 中立모색

미테랑 經濟문제 會員國과 마찰

◇IRP黨舍의 폐허 폭파된 이란 회교공화당(IRP) 중앙당사에서 구조반이 회생자의 시체를 끌어내고있다。【테헤란29日UPI=聯合】

【룩셈부르크30日路透=聯合】미테랑 프랑스 대통령등 歐共市(EEC) 10개국 정상들은 29일 정상회담 첫날회의에서 18개월째 지속되고있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종식시키기위해 국제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고위정부관리들은 10개국 정상들이 아프간사태의 조기해결을위해 2단계 국제회의를 소집하자는 영국측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히고 이같은국제회의소집제의에 대한 소련의 반응을 타진하기위해 내주 캐링턴영국외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 관리들은 지난주 EEC외상들에 의해 구체화된 아프간 문제에관한 국제회의의 소집계획은 오는11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5개상임이사국과 아프간 파키스탄 이란 인도등 관련 당사국들이 회의를열어 1단계로 외부침략으로부터 아프간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또이계획은 오는 82년에 2단계회의를 속개、아프간국내안보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아프간을 중립화하여 국제적 승인을 받도록하는 방안을 토의하도록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29日UPI路透=聯合】歐共市(EEC) 10개국 정상회담이 29일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등 3개회원국의 신입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처음으로 참석한가운데 룩셈부르크에서 개막되어 ▲아프가니스탄사태 해결을위한 국제회의개최 ▲미국의 高金利정책과 EEC域內 경제난해소 ▲중동 평화달성등 주요의제를놓고 이틀간의 토의에 들어갔다。

금년들어 두번째열리는 EEC정상회담에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지오바니·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및 마르크·에이스켄스 벨기에수상등 3개회원국의 신입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수반이 처음으로 참가하고있는데 특히 左傾的 사회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미테랑 대통령은 域內경제문제를 둘러싸고 첫날부터 다른회원국과 심각한 異見을 보였다。

地下暴力운동전개

이란 左翼세력등 在野團體

【베이루트(레바논)29日AP=聯合】이란의 회교정부로부터 去勢되고있는 좌익세력등 在野단체들은 팔레비前王의 축출을위해 한때 동맹관계를 맺었던 회교정통파들에 대한 地下폭력운동과 선전전을 펴고있다고 소식통들이 29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란의 제2인자이며 3人대통령위원회의 일원인 베헤슈티대법원장등 72명의 이란회교공화당(IRP)지도자들을 살해한 폭탄폭발사건은 이란강경파를 겨냥한 가장 무서운 타격이었다고 말했다。

메아리

비밀 課外

사회정화위원회는 30일 남몰래 과외수업을 해왔던 교사 5명과 학생 11명및 학부모 7명등 모두 23명의 관련자를 적발했다。

지난해 8월이후 과외금지조치가 취해진 다음에도 심심치 않게 비밀과외가 적발되어 오더니 이번에는 급기야 조직적으로 그룹지도를해온 2명을 구속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회정화위원회가 적발한 비밀과외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가볍게 끝났으며 기껏 해고、경고등이 고작이었다。이번에 인신을 구속하기까지 된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외로인한 여러 사회적인 부조리를 도려내려 하는 결의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지난날엔 대체로 정부는 비밀과외의 금지조치같은 국민생활과 밀착된 사항에 대한 엄격조치를 취했다가도 대부분의 경우는 흐지부지 해버리기 일쑤였다。용두사미 아니면 태산이 울리고도 쥐새끼 한마리가 얼씬할까 말까하는 희미한 실정이었다。

어느 당국이 79년말 주먹구구로 과외에 쓰이는 돈을 알아보았던바 1천억원에 이를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일류병에 찌들린 교육의 정상화를위하여 과열과외의 열기를식혀보려는 온갖노력들이 다 등장했었다。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와 일부도시의 고교평준화도 따지고보면 병적인 과외의 열풍을 가라앉히려는 시도였으나 이렇다할 효과가없었고 되려 대학입시에서의 아우성만 드높게 하고말았다。

우리사회의 과열과외는 교육능력을 초월하는 과잉교육의욕과 출세제일주의의 병폐가 상승작용하여 퍼졌던 현상으로서 그 근본적인 대응책은 터무니 없는 일류병부터 바로잡아야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와같은 가치체계의 재정립이 행정적인 조치로만 하루아침에 기대될수는 없는 일이다。그렇다고 무위무책으로 바라만 보다가는 나라의 장래를 그르칠 소지마저 엿보이므로 드디어 단을 내린것이 작년의 7·30조치였다。

끈질긴 집념이 과연 모든과외의 뿌리를 뽑게 될 것인지는 더두고 보아야 할 일이나 간헐적인 적발의철퇴가 불법과외의 싹에다 된서리를 안겨줄것만은 분명하다。

"原子彈보다 심각한 結果"

라프산자니議長 희생자 72명장례식 哀悼

【테헤란30日路透=聯合】수십만의 이란인들은 30일 회교공화당(IRP)건물의 폭발사고로숨진 베헤슈티 대법원장등 72명의 지도자들의장례식에 참석、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회교혁명을 가로막는 「내부의적」들에 최후의 경고를 보냈다。

이날 목재관에 싸인 유해들은 마즐리즈(의회)에 안치되어 빽빽이들어선 애도객들의 조문을받았다。

한편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은 애도객들에게 『우리 이란인들은 反혁명 분자들과의 타협을 모색했었다』고 말하고 『이 끔찍한 범죄를겪고난 뒤에 누가 우리에게 그들의 행위를 용납토록 요구하겠는가? 국가는 국내와 국외의적이 누구인지 알아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음모는 해외에 뿌리를갖고 있는 가지들만을 국내에 두고있다』고 말했다。

라프산자니의장은 범인이 장치했던 폭탄은 원자탄이 폭발한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이라고 군중을 향해 말했다。

大法院長 아르데빌리 任命

【테헤란29日AP=聯合】이란혁명최고지도자 아야톨라·호메이니옹은 29일 집권回教共和黨(IRP) 본부에서 28일 밤 발생한 대폭발사고로 숨진 아야톨라·모하메드·베헤슈티 대법원장후임에 검찰총장인 아야톨라·우사비·아르데빌리를 임명、이란 政局을 발칵 뒤집어놓은 폭발참극의 신속한 수습에 나섰다。

【테헤란30日路透=聯合】모하메드·자바드·바호나르교육상이 지난28일 사망한 아야톨라·모하메드·베헤슈티의 뒤를이어 회교공화당(IRP)사무총장에 선출됐다고 이슬람공화보가 30일 보도했다。

政治矯導소장도 被殺

【테헤란30日AP=聯合】이란집권회교공화당(IRP)당사에서 28일밤 발생한 폭탄폭발사건으로 72명의 이란지도자들이 사망한데 뒤이어 테헤란 근교 에빈 교도소의 소장 모하메드·카추이가 「근무중」 암살당한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관영 테헤란방송이 인용보도한 이란회교혁명 재판소 코뮈니케는 이날 카추이가 『미첩자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카추이의 유해가 IRP당사에서 28일 밤숨진 72명의 「순교자」들과 함께 이날 매장될것이라고밝혔다。이란당국은 이사건과 관련혐의로 여러명이 붙잡혀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收監者에 보복말라 호메이니 指示

【베오그라드(유고)29日AP=聯合】이란의 최고회교지도자인 호메이니옹은 72명의 이란지도자들이 사망한 이란회교공화당 폭파사건에도불구、투옥된 「수감자」들에 보복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유고의 관영 탄유그통신이29일테헤란발기사로 보도했다。

사드르提議부분同意 이란政府

【베이루트(레바논)29日AP=聯合】이란정부는 바니·사드르前대통령의 은신처에서 나와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제의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고 이란의 한고위관리가 29일 밝혔다。

베자드·나바비 이란국무상겸 정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란정부는 바니·사드르前대통령이 공개재판에 서기위해 제시한조건들을 일부 수락했으며 그의요구대로 이란국경을봉쇄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자회견내용은 회견에 참석했던 업저버들이 전화로 베이루트의 AP통신지국으로 알려왔다。

터키의 한신문은 지난27일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이란TV에 나가 자신을 변호할수있도록 3시간의 시간여유를 허용하고 자신의 발언으로 국외탈출할지 모를 이란지도자들을 막기위해 이란국경을 군대를 동원、봉쇄할것을 제의하는 전단이 테헤란거리에 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美、이란事故不介入 헤이그國務 부인

【워싱턴29日AP=聯合】헤이그美국무장관은 29일 이란고위관리 다수를 사망케한 테헤란폭발사고에 美國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이사고를 악용하려는 외부세력의 기도를 경고했다。

헤이그장관은 美첩보원들이 테헤란폭발사고에 개입돼있다는 이란측주장을 부인하고 미국은 이란의 정치소요에 불간섭정책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鄧小平의 5年 攻略 <1>

1中全에서 6中全까지

實事救是의 實踐시대 개막

凡是派와 어설픈同居 끝장…黨·政·軍 완전장악

◇中共黨의 거수票決 최근 北京에서 3일간 속개된 中共黨 11차대회의 표결장면。이 사진은 新華社통신이 제공한것이다。【北京29日UPI聯=聯合】

中共黨제11기中央委제6차 전체회의(11期6中全會)를 끝으로 중공의 「毛澤東시대」는 일단 막을 내렸다。

『열린다 열린다』하면서 6개월이상 개최를 미루어오다가 10여일에 걸친 비밀준비회의끝에 27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6中全會로 76년9월 毛澤東이 사망한뒤 불안하게 유지되어왔던 毛澤東노선과 劉少奇노선, 凡是派와 實踐派、文革受益派와 文革受害派간의 어설픈 동거생활은 끝난셈이다。

實踐派는 黨주석 胡耀邦、국무원총리 趙紫陽、黨군사위주석 鄧小平으로 黨·政·軍을 완전히 장악、곧이어열릴 중공당제12기전국대표대회(12全大會)에서 「實踐의時代」의 개막을 선언할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되돌이켜보면 華國鋒이 毛의 뒤를이어 黨주석자리에 앉아있던 지난5년간은 毛澤東을 추종하는 凡是派와 鄧小平을 따르는 實踐派간의 세력투쟁 속에서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과도기였다。

76년 毛澤東이 사망하고 江靑·王洪文·張春橋·姚文元등 4인방이 체포된후 77년3월에 개최된 제10기 3中全會에서 華國鋒은 『그대가 책임을 맡으니 나는 마음을 놓겠네(你辦事,我放心)』라는 毛澤東의 遺志를 들고나와 黨주석 국무원총리 黨군사위원회주석에 취임했다。뒤이어 두번 쓰러졌다가 세번째 일어난(兩下三上) 鄧小平은 黨부주석 국무원부총리 黨군사위부주석 총참모장의 자리에 복귀하여 兩派의 타협적인 정권이 들어섰었다。

이 華國鋒-鄧小平의 연합체제를 출범시키기위해 77년8월에 개최된 中共黨제11기전국대표대회(11全大會)에서 華國鋒은 정치보고를 통해서 農業·工業·國防·科學技術의 4化노선을 선언함으로써 實踐派노선과 타협하는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11全大會에 뒤이은 11기 1中全會(77년8월)는 앞서 10기 3中全會서 결정되었던 黨기구 선출을 확정지었고 2中全會(78년2월)는 10개년 경제계획을 승인하고 7건의 법률을 채택하는등 노선전환을 위한 법제정비를 구체화했다。

凡是派에 대한 實踐派의 본격적인 이론공격이 시작된것은 78년12월에 열린 3中全會부터이다。

3中全會에서는 4化노선의 적극추진과함께 毛澤東사상의 재평가에관한 논의가공식적으로 일기시작했다。이 자리에서 경제전문가 陳雲이 黨부주석으로 승진、서열6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鄧穎超 王震 胡耀邦등이 정치국에 새로 들어섰으며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實踐派의 기본논리가 채택되어 중국대륙을 지배하게되었다。

毛澤東의 大躍進운동을 비판했다가 59년실각했던 前국방상 彭德懷도 死後復權되고 『毛주석도 과오를 범했다』는 구절이 결의문에 삽입된다。

3中全會에 이어 79년9월 개최된 4中全會에서는 實踐派의 실용주의노선이 재확인되면서 4化정책에 조정을 가해 농업 현대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 전환이 역설되고 뒤에가서 국무원총리로 기용되는 趙紫陽과 문혁의 제1표적이었던 전북경시장 彭眞이 함께 정치국원후보에서 정치국원으로 승진했다。

이어 9월30일 중공건국30주년축하행사연설에서 葉劍英은 현대화운동을위한 거국적인 단결을 호소하고 57년의 反右派투쟁、58년의 大躍進운동、59년의 彭德懷해임、文革등 4가지사건에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凡是派(文革派)가 주장하는 毛澤東의 不可謬性을 부분적으로 否定함으로써 毛노선을 벗어난 경제개방정책을 주장하다가 走資派로 몰려 실각했던 劉少奇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80년2월에 개최된 5中全會는 實踐派의 세력을 또한번 확대한 승리의 판이었다。동회의결과 汪東興·陳錫聯·紀登奎·吳德등 소위 「凡是派의 小4인방」은 정치국에서 축출되고 文革이후 폐지되었던 黨中央서기처가 부활되어 胡耀邦이 총서기에 취임하여 黨務를 총괄하게되었을 뿐아니라 實踐派의 祖인 劉少奇가 12년만에 死後復權되었다。

그해 9월에 열린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3차 전체회의에서도 華國鋒이 겸직하고있던 국무원총리직을 趙紫陽에게 넘겨줌으로써 行政실권을 잃었고 연말에는 黨군사위주석직마저 鄧小平이 차지해 華는 명목상의 당주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凡是派 제거작업은 이때 이미 끝난 셈이었다。

毛澤東의 殘影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鄧小平의 시대를 마련하자면 華國鋒의 黨주석직사퇴는 꼭 필요한것이었다。實踐派는 華國鋒을 몰아내기위해 4인방재판이란 '세기의 정치쇼'도 연출했다。

文革受益派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인 華의 黨주석직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實踐派로 기울어진 대세의 흐름을 막을수는 없었다。

정치국에 남아있던 「大寨의 영웅」 陳永貴마저 쫓겨난다면 中共黨中央에서 凡是派의 인물은 하나도 남지않게된다。

비록 華國鋒이 부주석으로 강등되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毛澤東「동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상징적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다。

7월1일로 黨창설 6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은 이제 鄧小平을 정점으로 하는 「實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朴永韓기자】

6中全會 발표 要旨

【北京29日UPI聯=聯合】다음은 6中全會폐막후 中共黨중앙위가 발표한 성명全文이다。

중공당 제11기 중앙위 6차 전체회의가 6월27일부터 29일까지 北京에서 열렸다。6中全會에는 1백95명의 중앙위원과 1백14명의 교체위원 그리고 53명의 투표권없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黨중앙정치국상임위원회위원으로 胡耀邦、葉劍英、鄧小平、趙紫陽、李先念、陳雲、華國鋒등 7명이 선임되었다。

6中全會에서 토의된 사항은 ▲中共건국이후 黨史上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토의 승인과 ▲黨중앙위의 위원개선문제이다。

이번 6中全會는 黨의 지도노선에 무질서를 초래한지 일들에 대해 正道를 밝히기 위한 역사적인 권한을 주는일을 맡았다。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적용하여 6中全會가 결의한 中共건국이후 本黨의 역사에 관한 약간의 문제들에 대한 결의안은 中共건국후 32년간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 특히 문화대혁명에 관해 검토했다。

同결의안은 이사건에 있어서 黨의 지도노선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중국혁명의 위대한 導師인 毛澤東동지가 수행한 역사적 과업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과오를 초래한 주관적 요인과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黨의 지도노선으로서 毛澤東사상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묘사했다。

同결의안은 中共의 현실을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本黨의 작업과 本國의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해 나아갈 계속적인 방향을 제시한 3中全會에서 확인된 이후 점진적으로 수립된 진로인 현대적이고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확인했다。

6中全會는 이결의안의 발표가 黨과軍、전국의 인민들에게 이해와 사상의 결합에 커다란 영향을 줄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6中全會는 黨주석직을 사임하겠다는 華國鋒동지의 요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6中全會는 비밀투표에의해 다음과같이 黨中央委위원을 선임했다。

▲胡耀邦동지 黨주석 ▲趙紫陽동지 黨부주석 ▲華國鋒동지 黨부주석 ▲鄧小平동지 黨군사위주석 ▲黨정치국상임위원회는 胡耀邦、葉劍英、鄧小平、趙紫陽、李先念、陳雲、華國鋒으로 구성 ▲習仲勳동지 당서기처 총서기。

6中全會는 3中全會이후 공식화된 당의 올바른 노선과정책을 완벽하게 실행에옮기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당중앙위의 집단지도체제와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번에 선출또는 재선출된중앙위주요위원들이 중요한역할을 수행할것이다。

6中全會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진행됐다。모든동지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했고 역사적인 경험을 종합、자기비판과 비판정신을 통해 사실에서 진리를 찾는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다。이와함께 당중앙위의 주요위원들의 선출을 토의하고 결정했다。

이것은 延安기간동안 형성된 우리당의 훌륭한 전통을 되살린 것이다。6中全會는 우리黨의 강력한 단결과 성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胡耀邦이란 누구인가

鄧小平과 함께 浮沈한 長征派

최고의 理論家… 實踐論의 先鋒

胡耀邦의 중공당주석취임은 그동안 華國鋒의 사임설이 나올때마다 계속 거론돼온 일이다。胡는 작년 9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제3차회의에서 부활된 막강한 권력의 黨중앙서기처 총서기에 승진임명된이래 10개월만에 당주석이 되었다。

胡는 지난4월11일 北京서 열린 저명한 소설가 茅盾의 추도식에서 華國鋒이 동석했음에도 불구、그를 제치고 추도문을 읽음으로써 이미 「당주석」이 될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었다。

胡는 35년 毛澤東의 長征에 참가한 중공당 원로。鄧小平과 정치경력이 비슷한 「心腹」이다。그가 鄧을 처음만난것은 26세때。抗日전쟁중이던 당시 鄧이 사령원이던 중공군太行軍區에서 정치위원일을 보았다。이때부터 두사람은 「上下」사이가 됐다。胡는 鄧과 마찬가지로 문혁기간중 두번 숙청됐었다。67년숙청、75년복권、76년 재숙청·재복권등 부침의 세월을 鄧과 동행했다。

제5기全人代3차회의에서 胡가 요직인 당총서기에 임명된것도 鄧과의 밀접한관계때문이다。당총서기 취임전부터 당내 문혁파 세력을 몰아붙인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한 그는 마침내 華國鋒을 밀어내고 주석직에 올라 「10억의 기수」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胡는 1916년생(올해 65세)으로 毛澤東과 같은 湖南省출신。37년 抗日군정大에 입학했으며 졸업후엔 同대학 정치부부주임이 됐다。이후 八路軍 총정치부 조직부장(41년)、중앙군사위총정치부조직부장(47년)등 군요직을 거쳤다。49년 國·共內戰때는 중공군18兵團부정치위원으로 참전했다。53년1월까지 西南軍政위원직에 있다가 56년9월 8中全會에서 마침내 중앙위원에 피선됐다。승진을 계속한 胡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중앙위제1서기(58년11월)、西北局제3서기및 陝西省委제1서기대리(65년)를 거치며 군·당·정에 걸쳐 풍부한 경력을 쌓았다。그러나 문혁이 일어나 67년4월 共靑團제1서기에서 해임됐다가 72년3월 복권。75년 중공과학원 부원장으로 새출발했다。이때 胡는 중공체제에서는 제기된적이 없던 노임(工資)문제의 중요성에 착안、중앙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胡는 그해 8월11일 ▲과학기술공작의 조직 ▲과학지식분자의 정책 ▲과학기술10개년계획구상등 개혁적인 權報提綱을 鄧小平에게 제출했는데 문혁파는 胡의회보제강과 鄧小平이 작성한 공업20조、論總綱등 3개문건을 계급투쟁을 외면하고 생산력유일론을 제창한다고 비판、소위 三株毒草라는 죄목을 붙여 鄧派숙청의 구실로 삼았었다。

그결과 胡는 76년에 다시 권좌서 물러났다가 4인방 체포후 77년8월 11기중앙위원으로 컴백했다。동년 10월엔 중앙당학교부교장、12월엔 중앙조직부부장에 올랐다。

중앙당학교부교장시절 胡는 교내간행물에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표준」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게재、'實事求是論'을 펼쳐 실용파의 최고이론가로 나섰다。

鄧派가 毛澤東사상을 축소하며 실권을 확대함에버레하여 胡는 승진을 거듭해왔다。胡는 탁월한 조직능력의 소유자이며 외교에도 일가견이 있는 多才의 인물로 알려졌다。마르크스이론에 정통한 胡는 78년 중공대표로 汪東興을수행、캄보디아를 방문한 적도있다。가냘픈 체격의 短軀。1m60㎝인 「작은 거인」鄧보다도 「더작은 거인」이다。【金善教기자】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놓세 조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서서 구경하십시요.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래그
401 HWY / DUFFERIN ST. / ORFUS RD. / LAWERENCE AV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올·돈
LAWERENCE E / BERTRAND / WARDEN AVE. / BIRCHMOUNT RD. / EGLINTON E.
평 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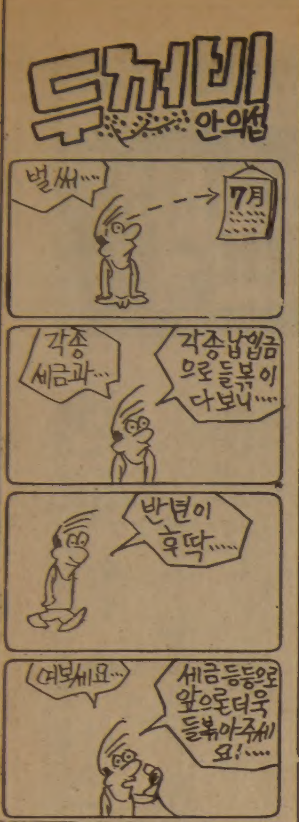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헨리
Q E W / ISLINTON AVE / ROYAL YORK RD. / EVANS AV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 429-7580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증발됐던 新生兒찾았다

死產한婦人이 犯行 誘拐 22일만에 釜山서

【釜山·大邱=聯】 대구제일산부인과병원 (원장 정원영)에서 지난8일 증발된 미숙아가 30일하오 부산시 影島區蓬萊洞4가49 김옥순여인(29) 집에서 발견돼 부모의 품에 안겼다.

실종22일만에되찾은 이 여아는 건강한 모습으로 흰바탕에 [illegible]무늬가있는 핑크담요에싸여 김여인집 안방에서 혼자 놀고있었다.

여아를 병원에서데려간 김여인은 이날 내연의남편 강모씨 (42) 와 병원원장, 간호원등 3명 앞으로 보내는 편지 3통을 여아 머리맡에 놓고 자취를 감추었다.

미숙아증발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날 김여인이 낯선 신생아를 키우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에따라 증발당시 여아를내준 대구 제일산부인과 간호원 김의분양 (21) 을 대동, 확인한결과 이귀옥여인이 출산한 미숙아로 밝혀냈다.

김여인은 지난5월13일 동제아이를 분만하기위해 고향인 대구 제일산부인과에 입원, 딸을 사산하자 남편에게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잘자라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것.

그후 내연의남편 강씨로부터 아이를찾아오라는 독촉을 받은 김여인은 지난8일하오6시 남편과함께 대구제일산부인과 병원으로가 남편을병원문밖에서 기다리게한뒤 인큐베이터속에 들어있던 이귀옥씨 (34·여·대구시동구둔산동825)의 딸을 자기가 낳은 아이인것처럼속여 간호원으로부터 인계받아 부산으로데려와 우유를먹여 키워왔다는것.

김여인은 4년전부터 강씨와 동거하면서 4살된 아들을 두고있는데 둘째 아이를 사산한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발생후 대구제일산부인과에서의 출산자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펴오던중 문제의 김여인이 이병원에서 아이를 사산했다는사실을 밝혀내고 30일상오10시께 형사대를 김여인집에 급파, 미숙아를 찾아냈다.

한편 달아난 김여인은 이날 하오3시께 영도경찰서수사과장실로 전화를 걸어 『죄를 지어 미안하다. 곧 자수하겠다』며 자수의사를 밝혀왔다.

動資部 사무관 拘束

精油會社 비축량조사싸고 수뢰

치안본부특수대는 30일 동력자원부 元鍾和사무관(29)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元씨는 지난해 11월9일 동자부 원유수급과 김영부사무관등 직원2명과함께 정유판매업체인 極東석유, 雙龍정유, 대한석유공사등 3개회사의 정유비축 현황을 조사 보고하라는 출장명령을받고 이사실을 해당업체인 極東석유대표 張홍선씨에게 통고해준후 張씨로부터 『앞으로도 잘봐달라』는 부탁과함께 7차례에 걸쳐 3백95만9천여원을 받은 혐의다.

元씨는 또 지난3월30일에도 雙龍정유대표 이승원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건설공영사무실을 방문했을때 李씨에게 『雙龍계열회사인 雙龍종합건설에 부탁, 토목공사를 하청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한후 5월초순께 雙龍종합건설이 昌原시로부터 2억3천여만원에 도급받은 명곡지구 기반조성공사를 1억3천7백만원에 하청받아 이를다시 신모씨에게 1억2천만원에 재하청을주고 1천7백만원의 부정이득을 취한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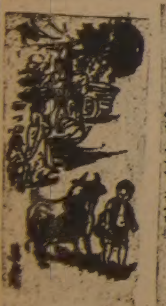
電鐵서 巨額소매치기

생선회칼 지닌 一黨8명 검거

서울 江西경찰서는 30일상습소매치기 인천파두목 吳文泳씨(21·仁川市南區崇義1洞375)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및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4월10일하오3시께 서울발 仁川행 전철안에서 승객 이창렬씨(35·仁川市中區龍洞13)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45만원짜리 자기앞수표1장, 현금25만원등 모두 70만원을 소매치기한것을 비롯, 지금까지 3백여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평소 생선회칼을 품고 다니다 범행이 발각되면 휘두른뒤 달아나곤했는데 29일 경에 검거될때도 칼을 꺼내들고 대들었다는것.



한국일보 詩壇

풍경

楊致[illegible]

◇실종된 桂潤군

4살어린이 失踪18일만에 "5百萬원내라"電話

지난12일하오1시께 서울東大門區[illegible]2洞 삼일아파트8동302호 黃[illegible]씨(38·운전사)의 2남 桂潤군(4)이 집앞에서 실종된지 18일만인 29일 黃씨의 집으로 桂潤군을 데리고있다며 5백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수사에나섰다.

29일 상오8시께 50대여인이 『桂潤군을 데리고 있으니 5백만원을 준비해두면 7월10일께 돌려주겠다』고 말한뒤 전화를 끊었다.

이 여인은10분후에다시 『서울역앞 湖南선 열차타는곳이다』라고 전화를 걸어와 黃씨가 『桂潤이의 인상착의를 말하라』고 하자 『애가말을 하지않아 말못하겠다』며 전화를 끊는등 3차례나 전화를 걸어왔다.

경찰은 50대여인이 첫번째 전화를 건 장소가 서울역앞 공중전화라고 말했으나 주위가 조용했으며 3분이상 통화를 한것으로 보아 가정집에서 한것으로 보는 한편 ▲黃씨가 보증금70만원에 월7만원의 삭월세방에 살고있어 유괴대상으로 보기어렵고 ▲50대여인이 돈을 요구한것이 실종18일이 지난후 단한번뿐이었으며 ▲30일의 마지막전화내용등으로 보아 아이가없는 사람이 桂潤군을 길에서 데려다 키우기위해 데리고있는것이 아닌가 보고 수사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내컬러TV방송을 시작한 泳薰국교방송실. 어린이아나운서, 어린이기사들이 방송을 맡고있다.

國校서 첫 컬러TV放送

서울 泳薰국민학교 有線으로

學級마다 20인치 수상기 43臺갖춰

自體프로도 만들어 學習效果 높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훈 교육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읍니다』

앙증스러운 꼬마 아나운서의 인사가끝나자 각반에 설치된 컬러TV화면에는 색상도 선명한 영상이 비치기시작했고 2천여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泳薰국민학교(교장 金乙任·48·여·서울城北區彌阿洞)에 생긴 유선미니컬러 TV방송국의 첫방송 모습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내 몇몇국민학교에 흑백TV방송국이 있었긴 하지만 컬러TV방송국으로는 처음이다.

지난 78년부터 방송국설립을 추진한 이학교는 지난달 29일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1일부터 정규방송을 시작한것.

학교지하실에 마련된 20여평의 스튜디오는 미니방송국이긴 하지만 짜임새는 정규방송국이나 다름없다. 방음장치가 완벽하게된 널찍한 스튜디오, 5평가량의 조정실과 자료실도 마련돼있고. 20㎾용량의 조명기 15대와 특수화면 조정장치 (Effect generator)도 갖췄다.

또 2대의 무비카메라, 녹화기1대, 2대의 VHS녹화기, 오디오시스템 까지도 설치돼 있다.

시청용TV는 각학급에 한대씩 비치된 20인치 컬러TV 36대를합쳐 모두 43대나 되며 시청자는 전교생 2천1백43명.

시청각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탐구력을 길러주기위해 설립된 泳薰교육방송국은 어린이들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할수있게 6명의 어린이 아나운서, 8명의 어린이 방송기자, 6명의 어린이기사들을 뽑았고 방송국장 申喜榮 선생님(41)등 6명의 운영위원들이 지도를 하고있다.

3천여만원을들여 4년만에 개국, 지난달29일 첫시험방송을했는데 이날 초대됐던 1천여명의 학부모들도 대견스러운듯 파안 40여분간의 시험방송을 축하했다.

어린이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20명의 방송국원을 선발할때는 4백여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泳薰교육방송국의 설립은 국장이며 3학년4반 담임을 맡고있는 申씨가 제의, 학교의 허락을얻어 이루어진것.

방송프로그램은 교내 특별활동상과 반공교육용등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만화영화.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나치기쉬운 교육방송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녹화했다 방영할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정규방송과 비정규방송으로 나누어 정규방송은상오8시~9시까지의등교전시간, 점심시간, 자율학습학년을위한것등모두 3시간. 비정규방송시간은 각학년 교과과목과 관련해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을 40분씩 4시간 방영하게 된다.

20여편의 프로그램을 준비한 泳薰교육방송국은 앞으로 교사들이 고적현장, 자연현장등을 둘러보고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교장 金씨는 『앞으로는 각과목에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VTR시스팀도 갖춰 교육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朴永利기자】

우리나라 標準時에 閏秒

오늘 상오9시에 1秒 길게

1일상오9시 우리나라 표준시에 閏秒가실시된다.

우리나라 표준시간을 관장하는 한국표준연구소는 30일 국제협정시(UTC)를 주관하는 국제시보국(BIH)의 통보에따라 1일상오9시(UTC로는0시)에 陽의 閏秒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실시하는 윤초는 한국표준시각으로 1일 상오8시59분60초를삽입하는것이다.

大宇·鮮京2億원씩 國際1億 원호성금 코오롱 5千萬원

大宇그룹 金宇中회장과 鮮京그룹 崔鍾賢회장은 30일 2억원씩의 원호성금을 원호처에 전달했다.

또 이날 國際그룹 梁正模회장이 1억원, 코오롱그룹 李東燦회장이 5천만원의 원호성금을 기탁했고 국제상사 생산본부 임직원들도 3백10만원을 전했다.

國立 心臟病센터 세운다

保社部 전국두곳, 83년에 豫算확보

病床 3百개이상… 實費수술 가능

非營利 민간財團설립 지원

선천성 어린이 심장병환자를 포함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전담하는 심장병센터가 우리나라에도 생긴다.

30일 보사부는 엄청난 진료비와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심장질환을 국가적차원에서 종합관리하기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키로하고 1차적으로 전국 2개소에 심장병의 진단및 치료, 수술까지 할수있는 국립 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할것을 계획중이다.

새로 설치될 심장병센터는 기존시·도립병원의 확장계획과 맞춰 교통조건등을따져 전국의 중심지가 될수있는 2개소에 세워지는데 병상규모를 3백개이상 (현재시·도립병원평균병상수는 60~80개)으로 늘리고 이곳을심장병 전문의 특수병원으로 국립화 시킨다는 것이다.

보사부당국은 심장병센터외에도 장애자재활센터, 간장(肝臟) 질환등 특수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병원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아 이에대한 시안도 검토중인데 우선 국공립조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선정, 종합병원기능에 관한 전국적조정계획 한도내에서 필요한 장비, 인력, 예산등을 갖춰 각각 전문진료센터기능을 갖도록 특성화시켜나갈 계획이라는것.

보사부에 의하면 심장병센터에는 ▲심장및 혈관촬영X선 진단장치와 ▲체외순환장치를 이용한 수술장비 ▲수술후 환자회복에 필요한 각종 정밀기기등 심장병의 진단·치료·수술에 필요한 장비와 심장병전문의료인력을 집중시켜 심장병에 관한한 기술·장비·인력·진료규모면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국 중심진료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라는것.

보사부당국은 심장병센터를 설립하려면 일반종합병원을 세울때드는 병상당2~3만달러의 2배정도인 병상당 5~6만달러가 소요될것으로보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83년 예산에 반영토록 예산당국에 요청키로했다.

국립심장병센터가설립되면 의료보험수가수준으로 재료비등 실비에 가까운치료비만으로심장수술등이가능해질것이라고보사부당국은밝혔다.

보사부는 심장병센터가 생긴다해도 환자를 모두 수용할수 없다고 판단, 日本의경우처럼 민간비영리 법인체인 심장재단이 우리나라에도 설립돼 심장병환자의 등록관리등을 맡아줄 필요가있다고 보아 이재단의 설립을 적극 지원키로했다.

심장병수술은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에힘입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는 수술이가능하고 수술만하면 거의정상인(70년대 사망률20%에서 현재는 4%이하)으로 활동이 가능해졌으나 1회수술비가 평균6~8백만원이 필요해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있다.

이때문에 영세민층은 수술엄두를 못내고 특히 한해 3천5백명~5천명씩 출생하는 선천성 심장기형아에대한 대책등이 시급한것으로지적돼왔다. 【兪晴錫기자】

母女 집단自殺劇 현장검증도 不應

蔡여인 격리키로

속보=서울城東區杏堂洞4 모녀 집단자살극의 현장검증이 30일하오3시40분부터 범인 蔡振淑씨(56) 집에서 서울지검 東部지청 金圭燮검사의 지휘로 진행되었다.

이날 蔡씨는 끝내 범행재연을 거부,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워버려 경찰은 이불로 인형을 만들어 蔡씨가 붙잡는 동작만 재연케하고 15분만인 3시55분 검증을 마쳤다.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국립정신병원에서는 蔡씨를 격리수용해야 한다고 통보해와 경찰은 蔡씨를 격리시키기로 했다.

비밀課外 23명적발

두교사 拘束·父母免職 또는 稅務사찰

사회정화위는 29일 비밀리에 과외수업을해온교사5명, 학생11명, 학부모7명등 23명을적발, 이가운데 과외교사李文浩(34·충남大田市 貞洞 2의9) 朴基昌씨 (37·서울冠岳區 奉天7洞 180의1 73)등 2명을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토록했다고 발표했다.

정화위는 또 과외교사黃成柱(21·서울恩平區應岩洞71의9) 李三烈(25·K대4년) 宋順子씨(27·여·서울道峰區彌阿洞236의6)등 3명을 입건토록하고 학부모池秉浩(45·東佑물산대표·서울江南區狎鷗亭洞현대아파트 10동1504호) 金鍾完(34·天道한의원대표·서울江南區盤室 장미아파트 7동607호) 姜周元(38·다방업·서울東大門區淸凉里洞미주아파트 2동1111호) 吳昌成(40·大園공영이사) 趙吉甲(39·三寶증권비서실장) 金德奎(47·新和산업전무) 周賢淑(40·서울江南區현대아파트83동101호)등 7명에 대해서는 세무사찰, 면직 또는 경고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城南 개울가에 50代女人 變屍

【城南=聯】 29일 하오5시께 경기도城南市壽進洞 풍생고교앞 단대천개울가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50대여인이 얼굴등을 크게 다친채 풀더미에 묻혀 숨져있는것을 이곳을 지나던 金學世군(16·고교1년)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군에 따르면 숨진 여인은 큰길에서 2m쯤 떨어진 개천가에 풀더미가 있어 발로 찼더니 얼굴형체를 알아볼수 없을정도로 크게다친채 반듯이누워있었다는것이다.

경찰은 뺑소니차량이 이여인을 치어 숨지게하고 이곳에 내다버린뒤 달아난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는 한편 숨진여인의 신원을 수배했다.

아파트 非常계단서 大學生이 投身자살

29일 하오9시18분께 서울江南區狎鷗亭洞 현대아파트 61동12층 오른편 비상계단에서 慶熙大 치의예과 2년 曺東鉉군(23·서울江南區鶴洞 41의2)이 높이36m 아래의땅바닥으로투신, 숨져있는것을 이아파트경비원宋錫勳씨(52·서울中區新堂2洞432의1 36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海外취업 2億사기

3百여명에

서울시경은 29일 서울恩平區新寺洞35의20 유일엔지니어링 대표 정영언씨(40)를 직업안정법위반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鄭씨는 지난16일 낮12시께 회사사무실에서 기능공 민홍규씨(35·서울九老區禿山1洞175)에게 『요르단암만시 통신시설신축공사장 기계기술자로 취업시켜 월7백달러를 받게해주겠다』고 속이고 알선비조로 60만원을 받은것을비롯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금까지 노동부의 인력송출허가없이 해외취업희망자 2백98명으로부터 1억4천1백여만원을받아 가로챈 혐의다.

文豪의 名言

마르티알리스 <40~104>

로마의 代表的풍자 詩人. 西班牙 히스파니아 출신으로 64년 로마에나와 同鄕人 세네카와의 友情으로 詩人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후에 騎士칭호를 받아, 晩年엔 고향에 돌아가 죽음. 「短詩集」 「크세니아」 등이 있다.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에 살라

그의 작품은 「에피그람」이라는 1,600여의 短詩 14권과 「크세니아(Xenia)」등이 있다. 그는 간결하고 [illegible]한 표현에 의해 에피그램이란 詩 장르에 결정적 形式을 부여했다. 그의 詩는 [illegible] 상상외의 인간관계의 갈등, 우아하고 신랄한 小品, [illegible]에대한 [illegible]등이 넘쳐있다. 이렇다할 [illegible]의 깊이는 없으나 당시 로마사회전반에대한 날카로운 관찰자로 특히 [illegible]에 능숙한 솜씨를 보여줬다.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에 살라」 「[illegible], 그대는 사랑을이 공연히 잃에 울리는것도, 꼭 님의 귓속에 다 대고 속삭인다」 그는 詩의 主題로 인물을 다뤄 당시 사회를 비치는 거울이 되려고 바랐었다.

〈알 림〉

우편파업중 무료픽업

캐나다의 고질인 우편파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독자 여러분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신문을 받아보시지 못하게 됐읍니다.

본사는 파업중이라도 신문을 계속 발행했다가 파업이 끝남과 동시 일제히 발송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본사는 각식품점과 음식점의 협조를 얻어 주 2일 배달, 독자 여러분이 무료픽업하실 수 있도록하며, 각종단체 모임과 한인사회 행사때마다 신문을 전달, 무료배부토록 하겠읍니다. 그외의 배달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파업이 오래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본사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실을 감안, 독자및 광고주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앙망합니다.

— 한국일보-토론토사 드림 —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본점)
" (동부)
써니식품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국관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週刊韓國 주간 女性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출품마감 사진대회

지난 6월6일 나이아가[redacted] 열린 사진촬영대회 작품 출[redacted]는 15일 마감됩니다.

마감일 : 81년7월15일
제출처 : 본사(1025 DUPON[redacted]T. TOR.)
(1025 DUPONT S[redacted]TOR.)
새한칼라현상소
(630 BLOOR ST. [redacted])
킴스카메라
(619 BLOOR ST. [redacted])
출품종목 : 흑백, 칼라
8"×10" 이상
스라이드
(135mm 120mm)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아저씨네 TV를 봐도돼요, 범스테드아저씨?"
"왜, 너희 TV는 망가졌니?"
"아뇨…"
"우리엄마가 잠시 약간의 평온과 안정을 원해서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5년내 取得한 5만弗넘는 海外移住費
資金出處조사 不法流出막아
逃避性 이민도 가려내
국세청 無記名 預金등도 조사강화

국세청은 移民가는 사람들의 해외이주비가 5만달러를 넘을경우 이주자산의 취득과 매각이 5년이내에 이루어졌을때에는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외화의 불법유출과 도피성 이민을 막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주자금의 취득과 매각이 5년이전에 행해졌다하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때에는 조사기간을 취득및 처분시점으로 소급할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5월 정부가 해외이주자에 대한 이주비지급제도를신설, 전가족 이주의경우 세대당최고 10만달러까지 외화를 바꾸어 나갈수있게됨에 따라외화의 불법유출및 도피성이민이 발생할것에 대비, 이같이 자금출처 조사범위를 정한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5만달러이상의 이주자산의 취득과 매각이 5년이내에 행해졌을경우 이에따르는 증빙서류를 제출케하여 국세청 電算자료와대비, 탈세및 국세체납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주자산의취득과 매각이 5년이전에 행해졌다하더라도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을때는 조사범위를 소급시키기로하고 특히 무기명은행예금및 유가증권처분을통한 이주자금에대해 조사를 강화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조사에서 탈세및 국세체납사실이 밝혀질경우 탈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담보를제공케하며 이에 응하지않을경우 이민을 허용치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5만달러 미만의 이주비에 대해서는 체납여부만 확인, 이민을 허용키로했다.

建設株 폭등
指數279·3 올들어 最高

시장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強保合勢를 보여온 建設株가 이번주들어 폭등세를 보이기시작했다.

30일 서울證市에서 전설업종指數는 전일보다 12.9%가 오른2백79.3으로 올들어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에따라 종합주가 지수도 올들어 최고기록인 2백7.4를 나타냈다.

이날 上限價로 오른 36개 종목중에는 26개건설주가 포함되어있다.

증권전문가들은 ①全대통령의 아세안 순방결과에대한 기대 ②건설주에대한 上昇기대및 假需要 ③주택경기활성화대책등에 힘입어 건설주가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백산 景觀 훼손
巨本벌채·岩石폭파 道路개설

【堤川=聯】제2의 丹陽八景으로 불리는 소백산(해발 1천4백21m) 계곡에서 20~30년이상 묵은 노송등 거목들이 벌채되고 암석 절벽이 폭약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어 수려했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충북 丹陽郡大崗面栗洞里 해발 1천2백m의 소백산계곡 일대지역은 영양산업주식회사(대표 邊翼圭·53·충북丹陽郡丹陽邑名川里240)가 丹陽郡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벌채중이나 산림훼손및 임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채 계곡 8개지점에서 암석들을 폭파하면서 사전 산간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기때문.

丹陽郡은 30일 영양산업대표 邊翼圭씨를 산림불법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清州지검 堤川지청(지청장 金榮秀)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韓電 創立20주년 有功직원등 포상

韓電이 7월1일로써 창립20주년을 맞이했다.

한전은 京城 南鮮 朝鮮電業을 통합한 61년 36만7천kw였던 발전설비를 9백83만6천kw인 27배로늘려 양적인 성장과함께 기술혁신과 脫石油電源의 촉진으로 질적인전환도 가져왔다. 또한 그동안 1천42억원을 투입, 농어촌 수용가 2백83만4천호가운데 落島와 벽지가옥을 제외한 2백77만7천5백호에 새로 전기를 공급, 전국電化率은 99%까지 끌어올렸다.

전화수용가수는 61년의 79만7천호에서 80년말현재 5백48만5천호로 연간소비전력은 11억8천9백만kwH에서 3백27억3천4백만kwH로 27.5배가 늘어났다.

1人當 전력소비량은 시간당 45kw에서 8백57kw로 19.5배가 늘어났다.

한전은 30일 동사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30년이상 근속자 58명, 20년이상근속자 8백13명을 포상하고 47명의 유공직원을 특별표창했다.

北傀, 迂廻침투로 전환
陸海空 경계强化로 海外동포왕래등 편승
北傀의 특수부대 訓鍊강화로
綠陰틈탄 間諜잠입 警戒할때

『기관단총, 수류탄, 무성권총으로 요인을암살하고 주요시설을 파괴하고 반정부시위대열에 끼어 데모가 유혈폭동으로 번지도록 선동하기위해 남파됐다』

작년6월21일 충남 瑞山앞바다에침투했다가 생포된 간첩 金光賢(42)이 기자회견에서 실토한 첫마디다.

휴전이후 28년은 북괴의정전협정위반과 끊임없는 대남간첩침투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휴전이후 지난 10일에 이르기까지 북괴의 지상·해상·공중을 통한 도발을 자행한것이 모두 5만8천6백36전에이른다.

특히 작년한해는 지상에서 8천3백27건, 해상에서 3건등 8천3백30건의 정전협정위반을 함으로써 연간 도발현황으로 최다기록을 세웠다.

지난 79년에 11명의 무장간첩을 침투(이중9명이 사살됨)시켰고 80년에는 36명을 대거남파 (33명사살·1명생포) 시켰다.

올들어서는 아직 무장간첩의 직접 침투는 없지만 지하고정간첩과 일본거점 우회잠입간첩등 36명이 우리 대공사찰기관에의해 검거됐다.

최근 북괴의 대남침투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군·경·예비군의 투철한 경계태세에 따라 육·해상으로의침투기도가 줄어든반면 해외동포의 모국왕래자유에 편승한 우회침투가 주가됐다.

지난4월 검거된 간첩朴昌錫(43·외항선원)이 그랬고 6월9일에 잡힌 재일동포간첩 孫裕炯(52) 일당도 해외동포 방한대열에 숨어드는 술수를 썼다.

국방부 당국은 북괴 무장간첩의 직접침투가 조만간 재발할 가능성이 짙다고 단언하고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년부터 대남침투를 위한 특수부대훈련을 강화하고 AN2등경비행기를 증강시키고있으며 소형잠수함 개발에 주력하고있다는 정보가 이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南海 瑞山횡간도등에 출현했던 무장간첩들도 모두가 새로운 水中潛行보트를 타고왔던점을 지적한다.

북괴 金日成은 全斗煥대통령의 6·5제의에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빼앗기자 엉뚱하게 제1공영호 어선을 납치했다.

지금 이시각에도 북괴는 全대통령의 아세안5개국순방성과를 질시한나머지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도발을 노리고 있을것은 뻔한일이다.

계절적으로도 야외생활이 빈번해지고 우거진 수목으로 은신이 쉬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온국민의 경계태세는 더욱 강화되어야한다 하겠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괴도발현황
(정전협정 위반현황)
(1953~1981. 6. 10)

구분 연도별	공중	해상	지상	계
1953	28	0	11	39
54	20	1	1	22
55	12	0	3	15
56	2	0	2	4
57	9	1	50	60
58	7	3	86	96
59	1	0	208	209
60	0	6	177	183
61	5	8	723	736
62	0	3	608	611
63	0	6	979	985
64	0	1	1,294	1,295
65	2	2	493	497
66	0	3	708	711
67	1	8	485	494
68	1	2	777	780
69	1	16	505	522
70	1	8	904	913
71	0	4	2,479	2,483
72	0	0	5,160	5,160
73	0	8	5,407	5,415
74	0	2	4,983	4,985
75	15	4	5,232	5,251
76	1	0	7,220	7,221
77	1	0	2,945	2,946
78	0	3	2,256	2,259
79	0	1	6,433	6,434
80	0	3	8,327	8,330
81·6·10현재	0	1	1,707	1,708
총계	107	94	58,435	58,636

國際入札자격 事前조정
商工部 過當경쟁막고 貿易질서유지

정부는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국내업체끼리 파당경쟁을 하여 국가신용을 떨어뜨리고 무역질서를 흐트러 놓는일이 없도록 제3국物品으로 국제입찰에 참가할경우및 해외현지법인등을 통해 국제입찰에 참가할경우에는 상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여 입찰자격자를 사전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무역관리규정을개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상공부는 또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서 입찰참가자의사전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관련부처 또는 단체의 의견을 참고 할수있도록하고, 정부의 사전조정을 위반하여 국제 입찰에 낙찰되는경우는 낙찰 자체는 인정하되 질서위반 행위에대해서는 행정적제재를 가하기로했다.

상공부는 이밖에도사진기, 컬러TV, 흑백TV, 뮤직센터, 앰프, 카세트등 면세물품을 해외취업근로자에 판매할경우 이를수출로 인정해주고 수출대금회수를위한 수출승인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수있도록했다. 구매절차는 6개월이상 해외에취업한 근로자가 귀국할경우 현지에서 쿠폰을 발급하면 공항에서 세관확인을 거쳐 국내판매소에서 구매한다.

새회장 務臺光雄씨 사장에 小林與三次
讀賣新聞 定總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사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무따이(務臺光雄)사장을 회장으로 승격시키고 자매회사인 일본TV의 고바야시·요소지(小林與三次)사장을 요미우리신문의 사장으로 발령했다. 하라(原四郎)부사장은 감사역고문으로 취임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家計手票保證카드 1981.7.
이 카드를 提示하고 아래事項대로 発行된 家計手票는 受取人이 手票裏面에 카드 番號를 記載하면 그 代金 支給은 저희 銀行이 保証합니다.
1. 카드 番號
2. 住 所 (住民登録番號)
3. 有効期限
○○銀行 ○○支店
電話( )-( )

家計手票 보증카드 流通
이달중에 銀行別로 發給

가계종합예금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수표보증카드제와함께 시행되는 이종합예금제도는 예금가입자에게 은행이 보증카드(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제시후 발급된 개인수표를 은행에서 무조건 지급보증해주는 제도이다.

금융단은 새양식의 가계수표가조제되고 보증카드제조가 끝나는대로 카드발급을개시할 예정인데 빠르면 7월중에 카드가 첫선을 보이게된다. 카드는 앞면과 뒷면의 기재사항만 통일하고 규격, 무늬등은 은행마다 다르게나온다.

30만원이내 貸越할수도

예금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수표책은 10장짜리와 20장짜리 두종류가 있는데①10장짜리는 3만원권5장, 5만원권2장, 기입식(액면을10만원 범위내서 미음대로 기입하는것)3장등으로돼있고 ②20장짜리는 3만원권10장, 5만원권4장, 기입식6장으로 돼있다. 예금가입자는 신용도에따라 10장짜리수표책과 20장짜리 수표책을 구분지급받게되고 30만원이내에서 대월을 일으킬수있게돼있다.

기능올림픽選手團 南惠祐총리 接見

南惠祐국무총리는 30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4連覇를 차지하고귀국한 선수단일행53명을 중앙청에서 접견,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專賣의 날 기념식=專賣廳은 1일 제13회 전매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전매공무원및 관련인사 1백50여명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

해외演藝

美감독들 出演料 引上에합의 罷業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던 美國의 영화감독들이 파업을 철회키로결정했다.

美國감독조합은 지난28일 제작자측과앞으로3년동안에최저39.23%의 출연료 인상에 합의, 일을 계속키로했는데 조건은 앞으로 2년은 매년 12%씩, 그리고 3년째는 11%를 각각인상하는외에 특별보너스로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이야기다. 【로스앤젤레스=AP·UPI】

內蒙古에 디스코붐 大學生사이에 퍼져

【內蒙古=聯】中共自治區의 하나인 내몽고에도 뒤늦게나마 디스코열풍이 불고있다.

大學生을 중심으로한 젊은이들에게 서서히일고있는 디스코열풍은 지금까지 그들을 사로잡던 월츠나 폭스트로트·탱고등과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서양음악으로 각광받고 있는것.

『우리들은 디스코 테이프를 北京이나 上海 또는 廣東의 친구들로부터 구하거나 美國의 소리방송과 英國BBC방송에서 직접 녹음하기도한답니다』라는게 한 대학생의 말이다.

中共 黨창당60주년 기념映畵祭를 개최

中國 共産黨 창당60주년을 기념, 중공은 지난 27일부터 「중공영화제」를 열고있다. 北京에서 열리고있는 同영화제는 1주일간 계속되는데 기간중 다큐멘터리를 포함, 36편의 장편 특집영화가 상영될 예정.

36편중 32편은 지난1949년부터 66년까지 제작된것으로 이중에는 「大長征」을 포함 「흰머리칼 소녀」「타더 비슨」등이 있다. 【홍콩=AP】

忠淸日報 公開警告
한국新聞倫理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忠淸日報 5월30일字 7면4단 「동거여인의 13세딸 욕보인 「철판」前科7犯검거」題下의 기사및 聯合通信6월11일字 ③社2「金品탈취후 女高生 욕보여」題下의기사는 봉변당한 소녀의 住所및 동생, 오빠등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新聞倫理實踐要綱「他人의名譽와 自由」章 제2、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 각각 「公開警告」키로 결정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流星의 賦 <11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⑮

[illegible]

Addison's Colossal New & Used Car Sell Off.

FINANCING
16.75%

Begins 9 a.m. Wed. July 8.

It's history in the making! The first ever indoor car sale to be held at the C.N.E. Six hundred Addison Pontiacs, Buicks and Cadillacs are up for grabs at the Queen Elizabeth Building. July 8, 9 and 10 – 7 million dollars worth of cars will all be sale-priced! Free parking available

ADDISON 7 MILLION DOLLAR SALE
Queen Elizabeth Building, C.N.E.

基礎科學의 육성은 장기적投資 따라야

기초科學협의회서 振興策 제시

國校 실험실확보율 겨우 20%

入試위주교육 탈피…探究力 배양을
大學및 附設연구소 機能 강화해야
再敎育등 통해 敎師자질向上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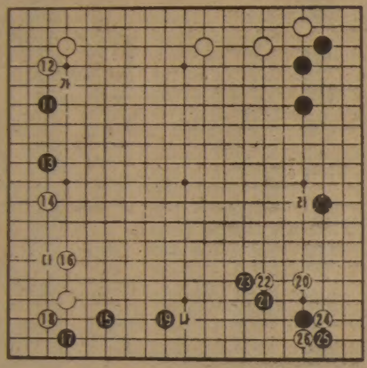
◇과학은 실험실습을 통한 창조적인 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가 실험실습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科學 리포트

【李光燮기자】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3譜 11~26 (각5시간)



右下귀는 제 1 국의 再版?

【一丁】

엔진설계·排氣가스 제어등
한국機械研、美와 공동研究
기계電子등 安全시험 情報교류도

◇朴勝德

바다의 노래 歌詞 현상모집
7월20일까지 科技振興財團으로

〈내용〉 〈대상〉 〈시상〉 〈마감〉 〈보낼곳〉

※이밖에 상세한것은 財團 진흥사업부로 문의 하십시오.

科學短信

서울 당뇨병研究所 每수요일 無料강좌

多目的 林業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⑦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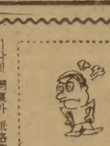
美서열린 FAO世界대회서 宣言

◇다목임업의 전기가됐던 60년 시애틀 FAO국제 임업대회 기간중 「국제친선의숲」을 만드는 행사가 장엄하게 베풀어졌다. 그날심은 잣나무가 한국의 기상을 상징하며 자라고있다.

환경保存·公害방지등 山林의 공익추구 重視

現代人의 健康百科

스트레스와눈병



눈속出血·시력障碍·구토증등 유발

金在浩 【醫博·가톨릭醫大 江南성모병원안과장】

걸작만화

"If you untie just me, I promise not to report the robbery to the police."

『풀어만주면 경찰에 신고안할것을 약속해요.』

모두들 외쳐 生 〈136〉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㊺

감사말씀

저의 장남 김대영(토마스)과 강민희(로사)의 결혼식에 바쁘신 중에도 몸소 찾아와 축복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힘을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 드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통하여 고마운 뜻을 전해 드립니다.

1981년 6월 일

김 종 욱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아세아한약방

●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 특수 한약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678 BLOOR ST. W.

☎ : 530-0522 조 지 섭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 렬, 김 선 남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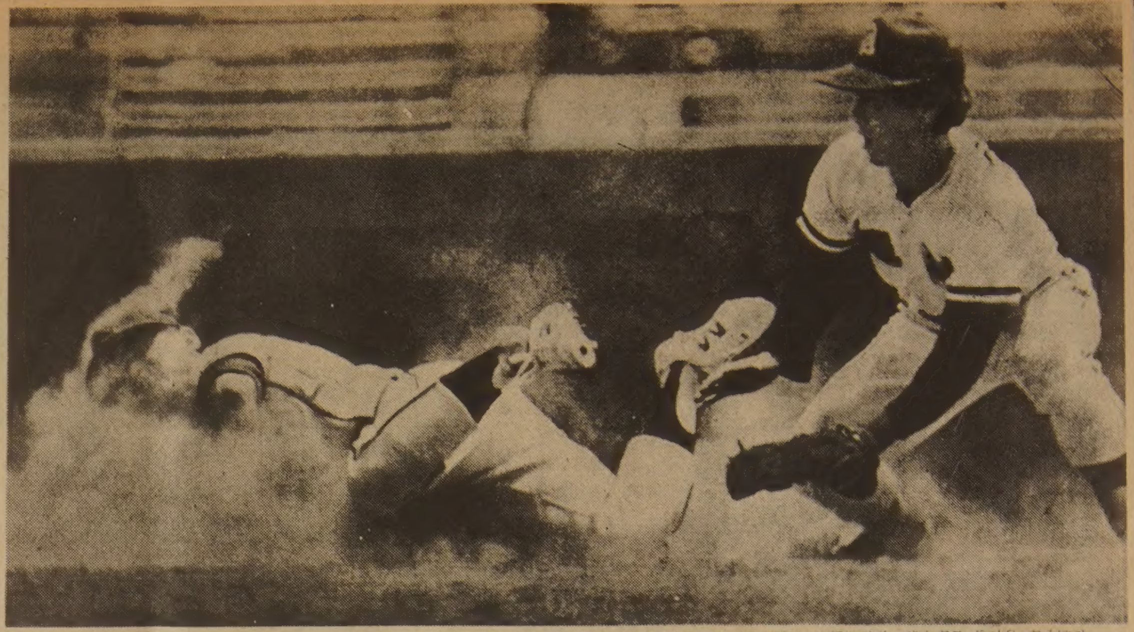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代走者의 3盜 아웃 農協과 經理團의 대선。9회초 포볼을고른 經理團의 李根植대신 代走者로 들어온 李永俊가 2盜할때 볼이 뒤로빠지자 3루까지달리다 아웃되고있다。

實業야구

農協、經理團에 一擊

沈載元 홈런도 無爲

2-1

農協이 선두대열을 달리던 經理團을 2-1로제치고 2승2패를 기록했다。農協은 30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실업야구후기 1차리그 8일째경기에서 3、5회말 각각 2死후에 얻은 2루의찬스를 4번金容允 7번金哲基의 적시안타를 살려서 7번 沈載元의 좌월솔로 홈런으로 추격한 經理團을 1점차로 제압했다。이경기서 經理團은 종반2차례의 항의소동으로 4명이 퇴장당했다。韓國電力은 2회초 8번張貞起의 2점결승홈런으로 浦項製鐵을 5-2로제압、2승3패를 마크했다。浦鐵은 안타수9-9로 대등한 공격력을 보였으나 韓電에이스 任昊均을 집중공략치 못하고 물러섰다。

經理團 항의하다 4명 退場

1점을 뒤진 經理는7、9회초 2차례에걸쳐 심판판정에 불복、58분간 게임을지연시켰다。

7회초 대타로 나와 포볼을 고른 경리단 金聖鎬가 農協투수 崔玉圭의 견제구에걸려 협살당하자 經理團측은 투수가 세트·포지션에 들어간후 일단 정지하지 않고견제구를 던진것은 보크가 아니냐며 항의했고 주자 金聖鎬는 李永善루심에게 욕설을 퍼부어 퇴장당했다。

그런데 金은 다음수비에서 우익수로 출장、農協측의 항의로 25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전기1차리그서 經理團에 6-8로 석패했던 農協은 2차리그서 3-3으로 비기더니 후기1차리그들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農協은 3회말 2死후우월 2루타로나간 3번 洪熙燮을 4번 金容允이 좌전적시타로 생환시켜 1점을 선제했다。

經理는 5회초 2死후 국가대표포수인 7번 沈載元이 좌월솔로홈런을 터뜨려 1-1 타이를 만들었다。

그러나 農協은 5회말 역시 2死후 6번 林楨勉이 좌전안타로 출루、2루를 훔치자 7번 金哲基가 중전적시타를 뿜어대 결승점이된 2점째를 올렸다。안타수에서도 農協이 10-7로 우세를 보여 農協의 상승세를실증했다。

높이뛰기서 韓國新

中高육상 여고부 金希宣 1m77로 1cm 단축

제10회 중고대항 육상경기대회 최종일 경기가 30일 서울운동장서 진행、여고높이뛰기서 서울體高의 金希宣은 1m77을 뛰어넘어 작년 전국체전서 李吉禮가 세운 한국기록 1m76을 1cm 경신하는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이번대회서는 한국신 1개、대회신44개、대회타이 8개가 나왔다。

한편 남고1천6백m 계주서 서울機工과 全北體高는 3분23초7로 대회신기록(종전 3분29초2)을 세웠고 남고8백m서 鄭然仲(울산고)은 1분54초9로 역시 대회신기록(종전 1분56초5)을 작성했다。또한 여고8백m서 忠州女高의 林順男은 2분13초8로 달려 대회신기록(종전2분14초3)을 수립했고 여고2백m서 朴美善은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대표인 全貞植(충주여고)을 누르고 24초8의 대회 타이기록으로 우승했다。

◇여고 높이뛰기서 1m77로 한국신기록을세운 金希宣(서울체고)이 바를넘고있다。

高校축구 골 러시

한게임 대부분 2~5골 기록

大統領金盃쟁탈、16強 확정

제14회 대통령 금배 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는 30일 효창운동장서 2회전 5게임을 진행、16강을 확정했다。1일과 2일에 열리는 3회전 대진은 中東高-江陵商、中央高-崇義實、慶熙高-利川農、東亞高-馬山工、徽新高-啓聖高、豊生高-昌信工、大倫高-全南體、信興實-錦湖·東大附 승자로 짜여졌다。

東亞高는 30일열린 2회전경기서 창단3개월째 접어든 泰光綜高(京畿松炭)를 5-0으로 대파했으며 慶熙高는 신예 慶文高(의정부)와 대결、朴基泰이 2골、安建鎬가 1골을올려 3-0으로 완승했다。

馬山工은 전반에서 梁海容과 徐庚祚가 골을 성공시켜 崇實高를 2-0으로제압 했으며 大倫高는 釜山소년의집機工과 맞서 2-2로비기고 승부킥서 大倫이 6-5로이겼다。

◇제6일 전적 ▲2회전

동아고 5 (2-0 3-0) 0 태광종고
경희고 3 (2-0 1-0) 0 경민고
마산공고 2 (2-0 0-0) 0 숭실고
대륜고 2 (0-2 2-0) 2 부산소년의집
<승부킥6-5>

團長에 崔勝珍씨 世界공기총 大會

대한사격연맹은 오는 8월8일부터 15일까지 도미니카서 열리는 제2회세계공기총선수권대회파견 韓國대표선수단단장에 崔勝珍공기총분과위원장을 선임하는등 24명의 선수단(임원4·선수20)을 29일 확정발표했다。

◇대표단 ▲단장=崔勝珍▲감독=李在熙▲코치=金鎬演(韓國體大)金鶴松(國民銀) ▲남자공기소총=徐長震·尹德夏(이상지도단)金鍾吉(國民銀)趙昌浩(光云工大) ▲여자 공기소총=金榮美(韓一銀)延恩姬(朝興銀)金銘善(서울信託銀) ▲동주니어=朴大震(男·第一銀)孫玉粉(女·企銀)李洪基(女·國民銀) ▲남자공기권총=金丈植·安光春·崔承萬(이상 國民銀)任太鎬(지도단) ▲여자 공기권총=金良子(企銀)金惠英(지도단)夫信姬(國民銀) ▲동 주니어=徐仁澤(光云工大)崔은식(韓國體大)趙成桂(忠南 大新高)

實業排聯 새집행부

실업배구연맹은 30일 일신상의이유로 지난26일 사표를 제출했던 石泰煥전무의 사표를 수리하고 金潤植씨(종합화학감독)를 전무이사로하는 신집행부를 구성、발표했다。

◇신집행부명단 ▲전무=金潤植(종합화학) ▲총무=田好寬(현대) ▲기획=梁寅鐸(한국전력) ▲경기=金振熙(후지필름) ▲심판=曺培浩(금성통신) ▲섭외=張鍾述(도로공사) ▲연구=宋世榮(태광) ▲감사=李昌浩(미도파)

花郎、신진으로 改編

올림픽·亞洲競技대비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일 상오 이사회를 열어 대표팀 花郎의 개편에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花郎팀은 趙廣來 朴成華 李康助등을 중심으로하여 신진급선수를 보강、82년 아시안게임과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예선등 각종 국제경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개편될 花郎팀은 제12회자카르타대회(8월13~23일·印尼)와 제25회 메르데카배대회(8월31~9월20일·말聯)에 출전할 예정이다。

나브라틸로바·에버트4强에

윔블던테니스 오스틴은脫落

【윔블던(英國)29日UPI=聯合】 제95회 윔블던 세계테니스대회는 막바지에 접어들고있는 29일 여자단식 준준결승에서 美國의 팜·슈라이버(19)가 같은美國의 10대스타 트레이시·오스틴을 2-0(7-5 6-4)으로 이겨 이변을 일으킨가운데 체코의 망명스타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西獨의 하나·만들리코바、美國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등이 4강이겨루는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나브라틸로바는 루마니아의 버지니아·루치를 6-2、6-3、만들리코바는 濠洲의 웬디·터볼을 6-0、6-0、에버트·로이드는 유고의 미나·요소베크를 6-2、6-2로 각각 물리쳤다。

1일부터 서울서 韓日고교 排球

日本 하카다(博多)남자고교팀초청 韓日고교친선배구대회가 7월1일과 2일 2차에걸쳐 서울서펼쳐진다。

하카다고는 총고연맹 초청으로 내한하는데 1일은 仁昌高체육관에서 홈팀 仁昌高와、그리고 2일은 奬忠체육관에서 文一高와 대전한다。

朴利熙 세계13位 世卓선수권 참가

【쿠알라룸푸르(말레이지아)29日AP=聯合】한국의 朴利熙는 세계탁구16강중 13위에랭크돼오는 30일부터 8월2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월드컵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됐다。

말레이지아 탁구협회는 세계16강에 올라있는 선수중朴 선수를 포함한 9명의 선수가 이번 월드컵대회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年俸百萬弗 25년長期계약

美프로籠球 존슨 史上최고·最長

2.5m長身에21세의黑人

美國프로농구 NBA의 로스앤젤레스·레이커스소속 어빈·존슨이 1년에 1백만달러씩、25년간 2천5백만달러에 재계약을 맺어 美國프로스포츠사상 최장기、최고금액의 계약을맺은선수가 되었다。금년21세인 존슨은 현재소속팀과의 입단계약이 83년에야 완료되는데、새로운 계약은 84년부터 시작、2천9년에 끝난다。현재 존슨은 연봉 50만달러를받고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연봉계약은 프로야구 뉴욕·양키즈선수 데이브·윈필드로 금년초 10년간 2천4백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존슨의 계약금은 총액에서 윈필드보다 1백만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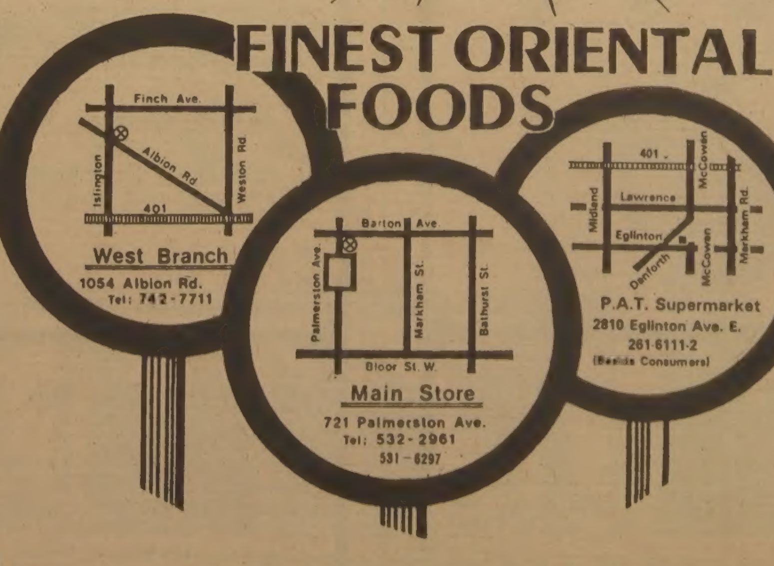
존슨은 프로농구에서도 팀·메이트인 압둘·자바、휴스턴의 모세즈·말로니등과 함께 연봉을 포함해 매년 1백만달러 이상을 버는선수가 되었다。프로야구서도 1백만달러이상 선수는 놀란·라이언、조지·브레트、데이브·파커、브레드·린、데이브·윈필드에 불과하다。프로 풋볼에서는 연봉 40만달러이상받는 선수가 하나도 없다。

프로경력 2년 밖에 안되지만 농구의 마술사로 불리는 존슨의 계약금은 연맹에 의해 승인을 받는데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계약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게되어있다。

계약내용에는 존슨이 언제까지 선수로 뛰어야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있다。그러나 은퇴를 한후 프론트·오피스에서일하든지 코치로 기용할생각이라고。

CANADIAN & ORIENTAL FOOD

한국식품



동부확장이전 스페샬

서부지점, NEW MANAGEMENT스페샬

Unico튀김오일 3 litre — $ 3.50

Coca Cola 24 can ——— 4.99(2Box Limted)

통닭 lb ——— 99¢

닭다리 lb ——— 99¢

소, 양 lb ——— 39¢

복숭아(Canada No.1) lb. —— 49¢ Box 9.50

Red delicious(사과) lb. —— 49¢ Box $19.00

수박 ——— 2.95

사뽀로이찌방(24개) Box — 9.95

※이품목은 매진 될때까지임

FINEST ORIENTAL FOODS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밀크 스토아 케쉬어구함 : 풀타임과 파타임
(유경험자 원함) DOWNTOWN지역
☎ : 925－0339

파타임 남자 헬퍼구함
848 MARKHAM RD.
☎ : 438－1528

COOK(한식과 일식), 웨이트레스 구함
2432 EGLINTON AVE. E.
☎ : 759－8512 CHOI'S레스트랑

인쇄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 : 746－0675

웨이트레스 풀타임1명, 파타임 1명
주말에 주방일 도우실분 1명
☎ 532－2727

초저녁 사무실
청소할분 구함
☎ : 977－1110

도넛샾에서 일하실
1. 풀타임, 파타임 여자분 구함
2. 남자 1명 밤일 하실분
☎ : 531－2689

거주 하셔서(5일/W.)석달된 여자애기와 4살된 여자애 돌봐 주실분
☎ : 444－5778 미세스 Chalambalacis

재봉사 구함 (남·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매매및 양도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 656－7753

가게매매 :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 (체인×웨스턴)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베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 924－7696 미스타 리

벡커 프렌차이즈 급매 :
1351 DANFORTH RD.
☎ : 267－2647

26인치 칼라TV급매 :
좋은 컨디션
☎ : 766－9169

메디칼 빌딩안에 있는 커피 SHOP팝니다
5일 반 OPEN ☎ : 968－6431(3시이후 연락바람)
499－5217(저녁)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가게매매 :
주매상 $4,200, 살림집포함(4베드룸) 렌트, 리스, 호조건. ☎ : 1－579－4451(OSHAWA)

아이스크림 기게 팝니다 :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이상, 리스5년, 옵션10년
전화번호 : 822－0363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산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직장전근상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1500의 73%
Asking : $40,000 ☎ : 249－3914
(CALL ONLY 7 : 30PM to 10 : 00PM) ZARINA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SET UP중인 가게를
급매코자 합니다.
☎ : 968－9221

자동차 매매 : 76년도 핀토·스테이숀 왜건
POWER핸들, POWER브레이크(49,000마일)
☎ : 742－0434 좋은 콘디숀임

SMOKE & GIFT SHOP매매 : 주매상 $6000보장, 리스6년 +5년 옵션 게임수입으로 가게운영비용 일체 지불할 수 있음.
☎ : 1－335－8946

가게 렌트
• 영·스트릿(새 교외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지역임
(가게이름 : VALDI DISCOUNT FOOD STORE)
•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높은 이윤및 매상이 가능
• 전화연락 : MRS. POPP(223－1606)

밀크스토아 급매 :
☎ : 277－3745

그로서리, 과일과 야채, 마른음식등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게 매매
많은 아파트 빌딩으로 둘러 쌓여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크기가 양쪽 1700피트, 짧은 시간에
경영할수 있는 비즈네스.
주매상 $3500 이상 가능, 낮은 렌트, 주인이 이주상
팔고자함.
ASKING $18900(많은 EQUIPMENTS, 쿨러)＋스탁.
☎ : 425－1255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쿨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타일 •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HILL TOP AUTOBODY
• 페인팅 전문 • 완전한 바디웍
13367 YONGE ST. (Up Yonge North Richmond hill)
☎ : 773－7777, 773－4362

식품점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식 당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 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손조정, 건반, 캐비넷칠, 조율 중고매매. 김 수 웅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8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창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추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휜치×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5월生産 0.9%감소
企劃院 設備械機 受注도 저조

작년9월이래 계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산업생산이 지난5월들어 전월대비 0.9%의 감소세(계절조정치)로 반전했다。30일 경제기획원조사에 따르면 콜라 주스등 여름철수요가 늘어난 음료품、냉장고 변압기등 전기機器類、농업용트랙터、일부의복과 섬유류가 생산이 늘고있으나 석탄 금속등 광업부문과 油類산업용화학및 시멘트타일등건축자재 생산이 크게 저조했다。

出荷도 3、4월의 증가세가 5월중엔 2.7%의 감소세로 반전했는데 특히內需보다 輸出出荷가 더크게 감소했고 在庫는 전달보다 1.2%가 줄었으나 작년같은달보다는 여전히 1.3% 높은수준이다。

그러나 5월이 연중수출과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한기간이란 계절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생산활동은 작년같은달보다 7.8%、금년들어 5개월간 전체로는 작년동기보다 6.3%가 늘어난수준으로 작년보다 약간활발한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내 1백개주요 설비기계메이커의 受注동향을보면 5월중에는 전달보다 4.1%가 늘었고 5월말까지의 累計는 經常가격으로 13.3% 증가(선박제외)에 그친데다 그나마 이증가도 公共부문發電설비受注의 이례적 증가에따른것이고 民間과 해외부문受注는 크게감소했다。

10代男妹 自殺기도

【光州=聯合】동생에게 심한 꾸중을 하는 아버지를 말리던 여중생이 아버지의 계속된 노여움을 이기지못한채 동생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하려 했으나 동생이 중태에 빠진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3일상오8시께 전남高興郡豊陽面 馬모양(15·P중2년)은 동생 馬모군(12·P국민교5년)이 친구와 함께 훔친돈5천원을 모두 써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아버지가 심한 꾸중을 하자 아버지에게 매달려 동생의 잘못을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으나 아버지는 계속 꾸중하며 그런짓을하려면 집에 들어오지도말라고 욱박질렀다는것。

音樂

金南潤교수 독주회

金南潤교수(경희대·사진)의 바이얼린 독주회가 7일 저녁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피아노에 李慶淑교수。연주곡목은 비발디의 소나타、슈베르트의 환상곡작품 159、모짜르트의 아다지오와 론도、라벨의 「집시」。

가톨릭 자선음악회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장애자를 위한 복지기금모금 자선교수음악회를 6일 하오7시30분 국립극장에서 개최한다。출연에 李惠淑·俞慶烈·辛英姬교수등 11명。

張吉山 (160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62)

그날부터 안 무당은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았다。정신이 밝을적에는 백련이나 제화와 애기도주고 받았으나 거의 온종일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이제는 정신을 차린 원향이가 부엌일이며 환자의 시중을 들어주어 제화는 놓여난 셈이었다。원향이도 정신이 들고는 그 자의 여러 애기를 제화와 백련이에게서 들었는지 경내에서 여환과 마주치면 얼굴을 붉히며 달아나기에 바빴다。그러나 원향은 여환이 방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 그의 옷짐을 뒤져 빨래거리를 내오기도 하고、그의 밥상은 제손으로 차려다가 따로 내는 등 자신의 말대로 섬기를 모신 것과 같이 하였다。여환이 쪽에서도 원향이가 실성하였을제에는 예전의 어린 누이를 대하는 마음 같더니、이제 온전해지니까 갑자기 거리가 생기고 낯설어져서 원향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사음계라도 범하는듯 두렵게 여겼다。

혼문에 지정한 날짜는 사월 예불이니 바로 닷새 전이 되는 오일 점심 때 출하여 이경순과 우대용이 월정사에 당도하였다。우대용은 전에 해주 감영 옥을 탈출하여 길산과 함께 구월산에 오르기도 하였고、몇번인가 월당을 모임에도 참석하여 월정사와 옥여 스님이며 풍열 큰스님과도 구면인 처지였으나、경기도 사람인 이경순은 서는 해서로의 행보 자체가 난생 처음이요 구월산이며 월정사는 전혀 뜻밖에 오게 되었던 터였다。우대용은 거침없이 대중방을 향하여 들어서는데 이경순은 이리저리 둘러보고 정황을 멈추고는 하였다。대용이 옥여 스님을 찾으니 옥여가 반기며 뛰어나왔고 여환이도 뒤미쳐 따라 나왔다。

「어이구、이거 해중거사(海中居士)가 십산에 오셨구려」

옥여가 예의 칠칠한 웃음을 웃으며 합장대신 대용의 두손을 덥석 잡았고、대용이도 빙긋이 웃었다。

「아직 연반하지 않은걸보니、구월산 곡차가 좋기는 좋은 모양이군」

「왜 나 또 우두령의 배가 깨져 고래 밥이 될줄알았지」

「허허 저 중 큰일날 소리를 하네。내 먹은 고기가 바루 고래 등심이여」

이렇게 수작이 오가는데여환과 이경순은 따로이 합장예로 인사를 나누었다。

「먼저 왔읍니다。부인도안녕하시고 아기도 별탈이 없는지요?」

「예 덕분에…참 말만 들었지만 구월산이 명산은명산이올시다」

이경순은 그간 여러 모임에 자기 대신 전생이를 보내더니、검계난리 이후로는 전생이를 중길이에게 보내주고 스스로 나다니기 시작한 터였다。파주 문산포의 주막은 이제 번창하여 집채가 네 채나 딸린 객주가로 자라나 있었던 것이다。

「어서 들어들 가십시다」

옥여가 청하여 그들은 방으로 들어가 앉았고 날을 모르는 이경순과 옥여가 인사를 나누었다。

「소승 문안이오。본사 원주를 보고있는 옥여라 하오」

「말이 중이지 저 생김새좀 보슈」

곁에서 초를치는 대용을모른체하며 이경순도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파주사는 이경순이라 하오」

「전에 금화에서 황저사와 전생이를 통하여 자세히 들고 있었오이다。그간 얼마나 고초가 많았읍니까」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지요。다만 절사람이 이런일에는 저보다 더 열심인지라…」

◇장연탁씨가 부인 조재숙씨와 좋아하는 작품「성장」(석고)을 사이에 두고 있다. 평론가 루나르디씨는 이 작품이 "긴장되고 정화된 힘의 선을 가졌으며 에너지의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예술에의 의지 불변

장연탁씨 조각연구소 열어

·교포조각가 장연탁씨의조각연구소 「삼우스튜디오」 개소 축하연이 지난 30일 하오 4~10시 토론토 랜스다운 지하철역 뒤(58 Wade Ave)동 연구소에서 열렸다.

장씨의 개인 전시회를겸한 이날 행사에는 약 3 백명의 교포및 캐나다 미술가들이 모여 어려운 실정에서 예술에 정진하고있는 장씨의 의지를 칭찬하고40점의 전시품을 관람했다.

전시품은 조각 28점, 그림 8점, 엣칭(동판화) 4 점이다.

관람자들은 조각과 그림 12점을 구입했다.

서울 미대를거쳐 온타리오·아트·칼리지, 이태리 유학등을 마친 장씨는 "71년 이민올 때부터 오늘을 기다렸다. 어느정도 생계유지만되면 앞으로도 이일을 계속하겠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씨 측근들은 장씨에게희망과 용기를 잃지않도록한 사람은 부인 조재숙씨라고 말했다. 조씨는 「장씨를위대한 예술가로 만든다」는 집념을 갖고 만삭의 몸으로 직장에 나가면서 장씨를 뒤밀어 주고있다.

이태리의 권위있는 월간지 "예술과 문화"는80년10월호에서 평론가 이티리오·루나르디씨의 장씨에 대한 평을게재, "장씨는 동양세계의 요소를 전혀 다른 서양세계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잘 표현했다"고 말했다.

루나르디씨는 "장씨의 작품은 풍요성이 조금 부족한듯 하지만 완전한 자유, 순수한 자연성, 생명을 불어넣는 행동을 보여주며 고풍적이고 자연적이며, 또 감동적 자극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했다.

장씨 개인전은 11일(토)까지 매일 상오11~하오 9시까지 열린다.

영화검열을 완화

"성인전용"을 "성인동반"으로

24일 발표된 온타리오주의 새 영화검열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 들은 전에는 관람이 금지되던 영화도 볼 수 있게됐다.

8월1일부로 발효될 새규정에 따르면 종전까지 18세이상에만 관람이 허용되던 "성인전용"영화중 일부가 "성인동반"으로 구분돼 14세이상이면 성인 동반없이도 관람허가되며, 14세이하이면 18세이상자인 성인을 동반해야 관람할 수 있다.

고든·워커 온타리오 주소비자·상업관계성장관은 24일 이같은 "성인동반"급 영화로는 〈All the President's Men," "조·타이난의 유혹"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영화 "조·타이난의 유혹"은 누드·신과 저속한 대화가 더러 끼어있긴 하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라고 워커장관은 말했다.

워커장관은 또한 영화검열위원회의 구성및 심사규정을 개정, 주로 폭력장면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화검열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3명의 풀타임, 2명의 파트·타임 위원들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에트닉계, 문화·사회및 전문분야의 대표 25명이 파트·타임 검열위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에서 영화검열 문제가 항상 말썽이 되어왔다.

20세기 그림중 최고가

피카소자화상 $530만

「YO PICASSO」로 제목이 붙여진 이 자화상은 명화경매사상 4 번째의 고가기록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카소의 자화상은 1901년 봄 파리에서 완성한 작품이다.

스페인태생의 금세기 최대화가 파블로·피카소의 자화상이 [illegible]일 맨하탄에 있는 소스비 경매장에서 20세기화가의 그림으로는 최 고가인 530만 달러에 경매되었다.

◇530만달러에 팔린 피카소의 자화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㉔

팔리·모왓 원작, 현재웅 옮김

다음날 정오쯤 잠이깬앙그레알락은 침상밑으로 떨어져 괴상하게 뒤틀린형태로 얼어있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들이 깨기전에 시체를 이글루 밖으로 끌어내려고 아무리 애를써도 죽으면서몸부림을 치다가 뻣뻣하게벌린사지를 굽힐수가 없었다. 그는 아내의 시체를옮겨놓을수 없게되자 잠시동안 자기가 그렇게도 사정했기 때문에 다른사람을따라 갈 허 작은 희망이나마 걸고 동쪽으로 함께 가지못하고 이곳에 홀로남아있게 만들었던 시체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그날저녁 개한마리가 죽어버려 온식구가 먹어치웠다. 아이들은 굶주려 죽은개의 바짝마르고 쓴 고기를 먹었다.

앙그레알락은 아이들이 먹고 남은것을 조금먹고기운을 차렸다.

또 한주일이 지나서 다른 두마리의 개도 전혀 쓸데가 없기 때문에 더 말라버리기전에 잡아먹었다.

3월은 4월로 바뀌었고드디어 바람도 잠잠해졌다. 그리고 햇볕은 기울어져가는 겨울의 하늘위에 점점 선명히 높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개고기가 다먹어 없어지자 앙그레알락은 그의 낡은총을 꺼내들고 어느날 아침 환한 문밖으로 기어나왔다. 사냥꾼이 다시 사냥을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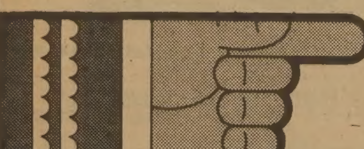
총자루를 뒤에 끌면서얼음처럼 굳은 눈위를 비실비실 약 백여야드까지 기어갔을때 햇볕때문에 반소경이된 눈으로 바라보니 앞 등성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힘이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희망을 걸고 낡은 총을들어 겨누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슴의 기적같은 출현을향해 총을쏘았다.

이글루안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총소리를 전혀 듣지못했다. 그날은 하루종일 굶었다. 왜냐하면 사슴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청명한날사냥꾼이 그의 마지막사슴을 쏜 지평선을 향하여 낡은 총을 겨누고 뻣뻣이 굳어지고 있었다.

프란쯔가 오텍호수에 도착한것은 그 다음날 새벽녘이었다. 그는 곧 오텍의 이글루로 가보았다. 문은 불어온 눈으로 채워있어서 다른곳으로 가버린것을 발견하고 혹시 힐로호수로갔을까 해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려는 참이었다. 그가 개들을 호숫가로 몰려고하자 그중 한마리가 머리를 세우고 짖어댔다. 프란쯔는 옆으로 형체가없는 갈색의 둥근모양을 눈속에서 발견했다. 처음엔 오소리인줄알고 총을 꺼내들었다. 그 갈색 모양은 좀처럼움직이지 않았고,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다. 프란쯔는 그 죽은사람이 무서워졌다. 그의 인디안의피가 배인의 모습속에서 강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얼어붙은 시체를 건드리지않고 개들을 돌려 앙그레알락이사는 이글루까지 가보았다. 문이 열려있었고, 좁은 틈으로 바람이 들락거렸다. 잠잠한 둥근집안에 무엇이 있는지몰라 무서움을 느끼고 프란쯔는 큰 소리로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돌아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짐승의 발목을 잘라 죽게 내버려 두었을때 내는것 같은 동물의 소리가 들려왔다. 프란쯔는 개를 매놓고 용기를내서 날려온 눈으로 가득찬 긴 통로를 기어 들어가 보았다. 그는 때를맞추어 아이들을 구하러오게 되었던 것이다. 애들은 깨어있었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지가 온줄알고 작은계집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프란쯔는 파마의 얼어붙은 시체와 익툭의 험악한 시체를 침상에 깔아놓은가죽으로 덮어주고, 하루종일 그 이글루에서 아이들과보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수프를 스토브에 데워뼈만남은 두 아이에게먹이고 두아이가 다시 기운을 차릴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의 굶주렸던배가 다른 음식을 받아들일수 있을때 까지 계속해서 수프를 먹였다. 그가 조그만 스토브의 불을 잔뜩 올리자 이글루의 투박한벽이 방안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녹아서 번쩍거렸다. 작은 계집아이는 하얀 서리로 얼어붙은 작은손을사시나무 떨듯하며 프란쯔에게 맡기고 있었고, 프란쯔는 그손이 다시 따뜻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문질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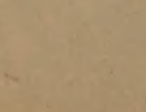
그 다음날이되자 아이들은 이미 믿을수 없을정도로 원기를 회복해서 어린이다운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프란쯔는 개밥과 자신의식량도 바닥이 났기때문에더 지체하지 않고 아이들과함께 떠났다. (계속)


〈CLEARANCE SALE〉
2 WEEKS ONLY
(1981년7월3일~7월18일까지)
SINGER
●Repair $24.99
●Used Machine(중고품) $49.95부터 있읍니다.

The Touch-Tronic* 2001 memory machine
SAVE $300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SAVE $40

The Stylist* FREE ARM Stretch Stitch machine
SAVE $100


미싱계의 왕 싱거!
바느질 배우는 낮과 저녁반 코스를 제공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미싱을 취급합니다.
TRADE-IN도 합니다.
CALL : MR. ARMAND
620 BLOOR ST. W. TOR.
(킹스카메라 건너편)
☎ : 537—4881 or 537—3841